

# 밀양의 전적 인쇄 문화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Traditional Publishing Culture at Milyang Area

임기영 (Lim, Keeyou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간행 서적과 서지적 특성 |
| 2. 밀양의 역사 및 출판문화사적 배경 | 6. 맺음말           |
| 3. 서적의 간행 및 유통 기록     | <참고문헌>           |
| 4. 冊板 目錄 및 冊誌 수록 서적   |                  |

## < 초 록 >

이 연구는 경상도 지역의 郡 단위 출판문화 활동을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그 중 載藥山 表忠寺와 우리나라 3대 樓閣의 하나인 嶺南樓, 四溟大師와 佔畢齋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밀양 지역의 인쇄 문화에 대하여 다루었다. 밀양에서는 일찍부터 불교가 융성하였고, 조선조 유교와 예학이 함께 발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밀양 지역의 萬魚寺와 表忠寺를 중심으로 한 사찰 출판은 조선 초기부터 19세기 말까지 꾸준한 빈도로 지속되었다. 또한 관청의 출판 활동도 15세기 密陽府를 중심으로 儒家書와 四書類를 간행하는 등 17세기까지 이어졌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官에 대한 서적 수요가 私家로 옮겨가면서 사가 출판과 더불어 서원과 재사, 향교, 누정 등 다양한 장소의 출판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더불어 밀양 지역 판본의 간행 방식에서는 목판을 통한 판각 활동이 지역 간행서 113종 가운데 93종(82.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이후에는 목활자를 통한 인쇄도 20종(17.7%)에 달해 私家에서는 경제적인 비용과 작업 효율성이 뛰어난 목활자 인쇄도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要語: 密陽, 密城, 密州, 密山, 凝川, 목판, 고인쇄, 목판 인쇄, 책판 목록, 읍지, 사찰, 향교, 서원

## <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ublishing culture activities at Milyang area in the Gyeongsang region. Among them, we covered the printing culture of the Milyang region, which is well known as the home of the Pyochung Temple, one of our three traditional cultures Yeungnamroo and Samyungdaesa so on. Buddhism flourished early in Milyang, and Confucianism and classical science developed together in the Joseon Dynasty. As a result of the study, temples began to be published early on in Milyang, with temples focusing on the temple. From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publishing activities continued in this area. Also, the publishing activities of government offices continued until the 17th century with the publication of Confucian books and materials centered around the 15th century. Lat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private publishing activities flourished as the demand for books in government offices moved to private houses. There were also many publishing activities in various places, such as Seowon, Jaesa, Hyanggyo, and Nujeong. Of the 113 books published in Milyang, 93 (82.3 %) were woodblock-printed. However, after the 19th century, 20 species (17.7%) of wooden type were published. This showed that private publishing preferred moer cheaper and efficient wooden type printing.

Key words: Milyang, Milsung, Miljoo, Milsan, Yeugchun, Woodblocks, Old-printing, Woodblock-printing, List of woodblocks, Eupji, Temple, Hyanggyo, Seowon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 사서(psycholo@hanmail.net)

접수일: 2018년 10월 15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21일  
서지학연구, 제76집, 251-288,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251]

## 1. 머리말

이 연구는 영남 지역 군단위 출판 문화를 파악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密陽은 일찍이 선사 시대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있고, 영남 지역 중에서도 오랜 전통문화를 가진 유서 깊은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밀양 지역은 미리벌이라는 옛 이름을 비롯하여, 삼국시대에는 密城, 고려시대 10세기경까지는 密州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고려 말 공양왕 때에 密陽府로 된 뒤, 15세기 초에는 密陽都護府로 재차 승격되어 큰 고을의 기반을 갖추었다.

그리고 밀양 지역에서는 表忠寺나 螢源寺, 萬魚寺 등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불교가 융성하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영남 사림의 요지로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서적의 요구와 인쇄 출판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에 따라 밀양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관청을 비롯한 사찰, 서원, 향교, 누정 등 다각적인 서적 간행 활동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지역을 아우르는 인쇄 문화에 대하여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출판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밀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출판 활동에 대한 역사 및 배경적인 사실을 고찰하고, 그 결과물로 남아있는 전존 판본을 서지적 관점에서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밀양 지역의 출판 활동을 다룬 앞선 연구로, 趙婷化<sup>1)</sup>는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영남지역 관서의 간행 사업이라는 범주에서 밀양 지역 간본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또 朴相國<sup>2)</sup>은 전국의 사찰 판목을 조사하였고, 여기에는 지역에 위치한 表忠寺가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판목에 대한 조사로 한국국학진흥원<sup>3)</sup>은 밀양 지역에 남아있는 목판에 대하여 문중과 서원, 사찰 등에 소장된 그 현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윤상기<sup>4)</sup>는 경남 지역의 서원과 예림 서원의 판본에 대한 개황을 다루었으며, 송정숙<sup>5)</sup>이 경남 지역 목활자본의 출판 현황을 분석할 때, 밀양 지역 목활자본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또 南權熙<sup>6)</sup>는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불서를 다루었고, 여기에는 밀양 지역 사찰 간행서가 언급되었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 대상의 시기 범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지를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는 밀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방식의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간본의 조사 대상은 일제 해방 이후 1950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관종별로는 지역에서

1)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2)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3) 한국국학진흥원,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同院, 2010).

4)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서지학연구』 제60집(2014. 12), 5-35.

윤상기, “밀양 예림서원 판본고,” 『인간과 문화연구』 제9집(2004), 367-402.

5) 송정숙, “경남의 목활자본 연구,” 『서지학연구』 제20집(2004. 12), 381-404.

6)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敎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1999. 2), 351-456.

금속활자를 통한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필사본을 제외한 목판 및 목활자를 통한 간행 활동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 2. 밀양의 역사 및 출판문화사적 배경

### 2.1 역사 및 출판 문화사적 배경

#### 2.1.1 밀양의 역사

밀양 지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弁辰 彌離彌凍國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 斯盧國이 慶州를, 狗邪國이 金海를 그리고 伊西國이 淸道를 지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밀양의 옛 이름은 미리벌로 지리적으로 낙동강 본류에서 멀지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밀양에는 일찍부터 하천과 구릉 지대를 따라 취락집단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彌離彌凍國은 이후 신라의 세력권으로 흡수되면서 신라의 대가야 정벌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智證王 6년(505)을 전후하여 推火郡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sup>7)</sup>된다. 그 뒤 8세기경까지는 推火郡 체제로 유지되다가, 景德王 16년(757)에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군현의 명칭을 고칠 때 密城郡이라 개칭<sup>8)</sup>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에 대한 통치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대체로 신라의 州郡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密陽도 신라의 密城郡 그대로 있다가 성종 14년(995) 전국을 4도호부 10도로 구분할 때 밀양은 경주와 함께 嶺東道에 포함되었다. 이 때 密城郡을 密州로 고쳐 격을 높이고 군수를 刺使로 개칭<sup>9)</sup>하였다.

이후 밀양은 14세기까지 몇 번의 개칭과 鷄林이나 梁山 등지에 移屬을 거쳤고, 태조 1년(1392) 密城郡으로 환원되기도 하였다. 그 뒤 조선 초기 태종 15년(1415)에는 주민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一千戶 이상의 고을은 모두 都護府로 만들게 하였는데, 이 때 密城郡이 密陽都護府로 승격<sup>10)</sup>되었다. 세종 때의 戶口數는 밀양대도호부 1,612호 1만1086명, 守山縣 93호 678명, 豐角縣 294호 1,981명이었다.

이러한 都護府의 규모는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후기 정조 9년(1785) 작성된 것으로

7) 『三國史記』卷第四「新羅本紀」第四〈智證麻立干〉六年 春二月條.

8) 『三國史記』卷第三十四「雜志」第三〈地理 新羅〉密城郡.“密城郡本推火郡景德王改名今因之領縣五尙藥縣…”

9) 『高麗史』卷第五十七「志」卷第十一 地理二 慶尙道 密城郡 沿革.“密城郡本新羅推火郡景德王改今名高麗初因之成宗十四年爲密州刺史…”

10) 『世宗實錄』권150「地理志」慶尙道 慶州府 密陽都護府.“…太宗元年辛巳還爲郡乙未以千戶以上陞爲都護府屬縣二守山本穿山部曲…”

추정되는 『密陽府邑誌』에 의하면, 1774년 밀양도호부의 戶口數는 1만 2백 19호였고, 인구는 5만 794명<sup>11)</sup>이었음을 밝혀 두었다. 그리고 고종 32년(1895) 전국이 36군으로 개편될 때, 大邱府에 소속된 密陽郡<sup>12)</sup>이 되었다. 이듬 해 1896년에 慶尙南道 密陽郡으로 개칭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2面을 두었다. 그 뒤 密陽邑을 거쳐 1995년 密陽郡과 密陽邑이 밀양시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1.2 출판문화사적 배경

밀양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儒佛이 융성하였고, 서적의 출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들이 갖추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지역의 表忠寺<sup>13)</sup>, 萬魚寺 등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정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속속 지어지고 다수의 高僧이 배출되었다. 또한 밀양의 출판 환경은 조선 전기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서원이나 서당, 향교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유교적 교육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지역의 자연 지리적 환경과 조선 후기까지 유학이 융성하였던 분위기 또한 지역의 출판문화 형성에 일조하였다.

밀양 지역의 사찰은 신라 말기부터 고려 중기까지 주로 건립되었다. 당시 사찰로는 載岳山 靈井寺를 위시한 石骨寺, 舞鳳寺와 현재는 寺址만 알려진 天柱寺, 塋原寺, 月影寺 등 10여 곳<sup>14)</sup>이 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찰 가운데 상당수는 18세기까지 존립되었던 것으로 확인<sup>15)</sup>된다. 그리고 현존하는 판본을 살펴보다라도, 15세기부터 지역의 사찰에서는 『六經合部』 등 왕성한 출판 활동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교육 기관으로 鄕校는 고려 후기부터 지역에 존립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가세하여 조선 초기부터 유교의 교육 기관이자 강학 기관이었던 書院과 樓, 書堂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시작은 16세기 중엽 점필재 金宗直을 배향한 德城書院<sup>16)</sup>에서 비롯되어 연이어 表忠書院, 三江書院 등이 속속 창건되었고, 이와 비슷한 시기 전란으로 소실된 嶺南樓가 중건되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유학과 관련하여 선비들의 교류 및 교육 활동 본연의 장소로 활용되어 그 역할을 다하였음은 물론, 지역의 출판 활동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테면, 전존하는 판본을 살펴보다라도 禮林書院을 비롯한 유교 기관의 출판 활동은 이미 16세기부터 시작되었고,

11) 『密陽府邑誌』 제22장 「戶額」. “甲午式元戶一萬二百十九戶元人口五萬七百九十四 / 口內男二萬 ….”

12) 『高宗實錄』 제33권 高宗 32년 5월 26일 丙申條. “大邱府大邱郡慶山郡添谷郡仁同郡星州郡知禮郡高靈郡善山郡開寧郡金山郡義城郡義興郡軍威郡比安郡密陽郡 ….”

13) 당시 명칭은 靈井寺로 불림.

14) 密陽誌編纂委員會 編, 『密陽誌』 (밀양: 밀양문화원, 1987), 188.

15) 1785년 寫 『密陽府邑誌』 제11장 「寺刹」條에는 靈井寺 외 10여 곳의 사찰이 기록되어 있음.

16) 후에 禮林書院으로 불림.

비슷한 시기 지역 내 書堂이나 齋舍의 출판 활동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었던 정황이 현존 판본을 통해 확인된다.

이처럼 학문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지역에서는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다수의 문사들이 배출되었고, 지역 내 私家에서도 先親이나 儒士의 문집을 꾸준히 간행해 내는 등 문헌의 출판 활동에 가세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중기 이후로 다양한 출판 주체의 간행 사업이 활발히 지속되었고, 19세기 정점을 찍은 뒤 20세기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3. 서적의 간행 및 유통 기록

#### 3.1 고려시대

고려시대 밀양에서 이루어진 문헌의 직접적인 간행이나 유통에 대한 기록은 매우 희소하다. 다만, 지역에서는 일찍이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출토되었으며, 고려시대 史蹟이나 사찰 관련 기록들의 일부가 밝혀진 정도이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밀양에서 이루어진 기록물의 생산이나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러한 기록들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 같은 기록이 문헌의 직접 유통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출판물의 유통 정황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종 16년(1025) 7월에는 밀양에서 발생한 지진을 조정에 알린 바<sup>17)</sup> 있고, 12세기 초 林椿<sup>18)</sup>은 밀양을 유람하며 작품을 남기기도<sup>19)</sup>하였다. 또한 고려시대 금석문으로 밀양 山外面의 瑩原寺 碑片<sup>20)</sup>과 朴僕射(1085-1151)와 朴華(1252-1336) 등의 고려시대 새겨진 墓誌銘 일부<sup>21)</sup>가 전하기도 한다.

그밖에 밀양 小台里의 오층석탑에서는 12세기 초에 작성한 목서 기록이 발견<sup>22)</sup>되기도 하였다. ‘堂塔造成記’로 알려진 이 목서 기록은 1109년에 작성되어 사료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고, 밀양 丹場 表忠寺에 소장된 유물 중 12세기경 제작된 靑銅 香垵에 1177년 작성된 銘文<sup>23)</sup>이 새겨져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밀양 지역 출판의 정황 증거로, 인근의 진주나 청도 지역의 출판 활동 사실을

17) 『高麗史』 권5 『世家』 5 顯宗 16년 7월 7일 丁亥條.

18)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사료나 그가 지은 작품에 따르면 1170년에서 1181년까지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다.

19) 『西河先生集』 권2의 詩 『遊密州書事』, “山郡多佳麗 名高冠一方 地靈人自傑 …”

20) 음악의 전서체로 ‘佛殿之記’라 새겨짐.

21) 1152년 刻 『朴僕射墓誌銘』, 1336년 刻 『朴華墓誌銘』.

22) 백지목서 堂塔造成記, “乾統玖年三月九日記 至今二百六新龍二年良中 …”

23) 表忠寺 靑銅舍銀香垵, “大定十七年丁亥六月八日 法界生亡共增菩提之願以鑄成靑銅 …”

들 수 있다. 고려 후기 인접한 진주와 청도에서는 이미 왕성한 출판 활동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 10세기를 전후하여 淸道와 昌寧은 밀양의 屬郡이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 13세기경 밀양은 계림부에 隸屬되기도 하는 등 지역 내 寺刹이나 官에서의 출판 정황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 3.2 조선시대

조선시대 밀양 지역의 출판 활동은 조선 전기 관청과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지다 이후 사가 출판 및 서원이나 향교, 齋舍 등이 참여하는 다원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출판 사실은 전존하는 판본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다음 장 간행 서적의 고찰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 장에서는 밀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헌의 생산이나 유통의 측면에서 관련 정황이나 기록을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밀양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유통과 관련된 이른 시기의 내용으로,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세조 4년(1458) 9월에 당시 守眉 大師와 해인사 주지 竹軒이 감독하여 印成한 『大藏經』 50권 가운데 1권을 밀양의 載岳寺에 보관한 정황을 기록<sup>24)</sup>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간행된 인본은 중앙의 禮曹는 물론, 영호남의 명찰에 두루 安置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아울러 조선 전기부터 李彥迪(1491-1553)을 비롯한 여러 儒士들이 밀양에서 府使 등 관직을 수행하면서 또는 밀양을 유람하면서 詩나 작품을 지은 사례<sup>25)</sup>는 다수 전하고 있다. 이를테면, 金安國(1478-1543)은 밀양향교에서 밀양의 儒生들에게 『小學』 공부를 권장하는 시<sup>26)</sup>를 짓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술한 林椿을 비롯한 밀양 嶺南樓에서 이루어진 선비들의 교유 및 작품 활동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한편, 지역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교류 사례로, 선조 6년(1573) 7월에는 直長 黃廷福이 柳希春(1513-1577)을 방문하여 황정복의 부친이자 密陽府使를 맡고 있던 黃簿가 보낸 『啓蒙翼傳』 3책을 전하고 『資治通鑑』의 빠진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언약을 받기도<sup>27)</sup> 하였다.

또한 같은 해(1573) 11월에 柳希春은 梁儀가 『柳文』을 인출하여 보내줄 것을 약속<sup>28)</sup>받기도 하였고, 이듬 해(1574) 9월 유희춘은 藝文館提學의 벼슬을 맡고 있었으며, 업무의 일환으로 교서관에 종이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官의 종이를 점검하였다. 이 때 오직 밀양의 종이가 얇고 성겨 화를 내고 密陽府使를 질책한 기록<sup>29)</sup>이 전하기도 한다.

24)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釋典類>의 <釋典總說>. “天順二年己卯二月始役九月告竣…藏于陝川海印寺二件高靈盤龍寺四件晉州白巖寺一件…密陽載岳寺一件…”

25) 『晦齋先生文集』 권1의 古詩 『雪中寄山中友人』外 『錦溪集』 등 다수.

26) 『慕齋集』 권1의 詩 『勸示密陽學者』. “章句文詞皆末耳 悠悠於道未容論 南州自古稱鄒魯…”

27) 『眉巖日記』 제4집, 癸酉 宣祖 6年(1573) 7月 初1日.

28) 『眉巖日記』 제4집, 癸酉 宣祖 6年(1573) 11月 19日.

이와 비슷한 시기 밀양 지역에서는 향교를 중심으로 하여 鄉約이나 鄉規, 또는 洞案이 작성되어 유지되거나 책으로 간행되었던 정황 또한 확인<sup>30)</sup>되기도 한다. 그밖에 광해군 4년(1612) 2월의 기록에 따르면, 밀양부사 元裕男 등이 중앙에서 주도한 『通鑑』, 『史略』, 『詩經諺解』 등의 교정 작업에 참여한 정황<sup>31)</sup>이 드러난다. 또 정조 7년(1783) 11월에는 왕이 『字恤典則』을 印刊하여 전국에 반포할 때, 密陽府使에게도 장황하지 않은 백지로 찍은 책 1건을 내려준 기록<sup>32)</sup>이 전한다. 이처럼 중앙에서 인출한 서적을 지방이나 감영에 반사한 사례는 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고종 즉위년(1863) 12월에는 密陽府使 李璈이 밀양의 화재를 알리는 牒문을 중앙에 올리고, 화재로 사망한 이들의 기록을 成冊하여 常賑廳에 상송하기도<sup>33)</sup> 하였다.

이밖에도 밀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과 교류 내용은 밀양 지역 인본을 비롯하여 관찬 사료와 문집, 일기 자료 등에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는 간본이 현존하지 않고, 기록만 남아있는 사례도 다수 있다. 서적의 유통 기록을 제외하고, 밀양의 간기를 밝히거나 발문 등에서 밀양 지역 간본으로 특정할 수 있는 판본들은 후술할 간행 서적의 검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4. 冊板 目錄 및 邑誌 수록 서적

책판 목록이나 읍지 등 중앙이나 지방 관청 주도로 만들어진 2차 자료에 수록된 책판이나 서명은 지역의 출판 상황을 소급하여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만, 이와 같은 2차 자료에 기재된 판본이 반드시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 4.1 冊板 目錄 수록 서적

책판 목록은 대체로 중앙이나 지방 감영, 또는 지방 관청의 주도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책판 목록은 인본을 기재한 서책 목록과 달리 판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지역의 문헌 출판 사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책판 목록 가운데 밀양 지역의 책판이 수록된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9) 『眉巖日記』 제4집, 甲戌 宣祖 7年(1574) 9月 11日.

30) 1609년 寫 『赤項洞案座目』, 1724년 寫 『密州青衿錄』 및 『龜齡洞案與秀亭記』의 金守訥 序. “萬曆甲辰三月乙卯… 壬辰經亂之文籍無徵嘉靖以前洞案 / 則不得錄正舉嘉靖以來洞員而錄之 / ….”

31) 『光海君日記』 光海君 4年 2月 2日 丙寅條. “…元裕男尹應瑞等及璿源錄纂集通鑑史略詩經諺解內訓校正等賞加大濫 請竝命改正 ….”

32) 『內閣日曆』 정조 7년(1783) 11월 11일 己亥條. “頒賜字恤典則… 密陽府使善山府使青松府使… 各不粧白綿紙一件 ….”

33) 『慶尙監營啓錄』 고종 즉위년(1863) 12月 29日條. “… 被燒戶統 / 戶役姓名大中殘戶區別成冊修正上送于常 / 賑廳緣由 ….”

<표 1> 책판 목록에 수록된 밀양 지역 책판

목록명	간행년	판본	수록 책판명
『攷事撮要』	1576	을해자본	『論語』, 『詩傳』, 『春亭集』, 『銅人經』, 『東人詩話』, 『牧民忠告』, 『相宅經』, 『產要書』, 『禮記』, 『文章軌範』, 『紀行錄』, 『西河集』, 『楚辭』, 『懶齋集』
『攷事撮要』	[1576]이후	목판본	『論語』, 『詩傳』, 『春亭集』, 『銅人經』, 『東人詩話』, 『牧民忠告』, 『相宅經』, 『產要書』, 『禮記』, 『文章軌範』, 『紀行錄』, 『西河集』, 『楚辭』, 『懶齋集』, 『唐鑑』*
『攷事撮要』	1585	목판본	『論語』, 『詩傳』, 『春亭集』, 『銅人經』, 『東人詩話』, 『牧民忠告』, 『相宅經』, 『產要書』, 『禮記』, 『文章軌範』, 『紀行』, 『西河集』, 『楚辭』, 『懶齋集』, 『唐鑑』, 『洪範正俗』*, 『洪武正韻』*, 『無註毛詩』*, 『儀禮圖』*, 『近思錄』*, 『駱賓王集』*, 『灌圃集』*
『攷事撮要』	[1585]년경	필사본	『論語』, 『詩傳』, 『春亭集』, 『銅人經』, 『東人詩話』, 『牧民忠告』, 『相宅經』, 『產要書』, 『禮記』, 『文章軌範』, 『紀行』, 『西河集』, 『楚辭』, 『懶齋集』, 『唐鑑』, 『洪範正俗』, 『洪武正韻』, 『無註毛詩』, 『儀禮圖』, 『近思錄』, 『駱賓王集』, 『灌圃集』
『古書册板有處攷』	[1700]년경	필사본	『洪範皇極內篇』, 『剪燈新話』, 『詩』, 『楚辭』, 『論語』, 『春亭集』, 『銅人經』, 『東人詩話』, 『牧民忠告』, 『產要集』, 『禮記』, 『文章軌範』, 『西河集』, 『千字』*, 『唐鑑』
『慶尙道册板』	1730	필사본	『佔畢齋集』
『册板置簿册』	[1740]년경	필사본	『佔畢齋集』, 『彝尊錄』*
『三南所藏册板』	[1743]년경	필사본	『佔畢齋集』
『諸道册板錄』	[1750]년경	필사본	『佔畢齋集』
『完營册板目錄』	[1759]년경	필사본	『佔畢齋集』
『嶺南列邑所在册板目錄』	[1760]년경	필사본	『佔畢集』
『各道册板目錄』	[1778]년경	필사본	『疑禮問解』*, 『佔畢齋集』
『古册板有處攷』	[1780]년경	필사본	『洪範皇極內篇』, 『剪燈新話』, 『詩』, 『楚辭』, 『論語』, 『春亭集』, 『銅人經』, 『東人詩話』, 『牧民忠告』, 『產要集』, 『禮記』, 『文章軌範』, 『西河集』, 『千字』, 『唐鑑』
『書册目錄』	[1815]년경	필사본	『疑禮問解』, 『佔畢齋集』

(\*표시는 앞선 책판 목록에서 중복되지 않은 판)

이상의 <표 1>과 같이 밀양 지역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책판 목록은 14종에 달한다. 이러한 책판 중 상당수는 현존 판본이 확인되고 있으며, 조선 전기 『攷事撮要』에 수록된 판본 예컨대, 풍수학서로 『相宅經』이나 아이의 출산과 산후조리법을 담은 『產要書』<sup>34)</sup> 등 일부 판본처럼 전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료들도 있다. 그리고 1576년경 간행된 목판본 『攷事撮要』에는 활자본 『攷事撮要』에 수록되지 않은 『唐鑑』 1종이 추가된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9년 뒤 1585년 새겨진 『攷事撮要』에는 『洪範正俗』과 『近思錄』 등 7종의 책판이 추가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34) 『胎產要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4.2 읍지 수록 서적

읍지는 地誌인 동시에 지방의 통치나 정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서의 성격이 강하여, 書目이나 冊板 目錄에 비하여 서적에 대한 기록은 소략한 편이다.

<표 2> 읍지에 수록된 밀양 지역 책판

읍지명	수록 책판명	간행년	판본
『東國輿地勝覽』(密陽)	-	1530	목판본
『密陽志』	-	1652	목판본
『密陽府邑誌』	『佔畢集』冊板 258立, 『小學大全』冊板 172立, 『疑禮問解』冊板 124立	[1785]	필사본
『密州邑誌』	-	[정조년간]	필사본
『密陽府邑誌』	『疑禮問解』板在 鄕校, 『佔畢齋集』板在 書院	[1832]	필사본
『嶺南邑誌』(密陽)	『佔畢集』, 『小學大全』, 『疑禮問解』	1871	필사본
『嶺南邑誌』(密陽)	『佔畢集』, 『小學大全』, 『疑禮問解』	1895	필사본
『密州舊誌』	-	1898	필사본
『密陽郡邑誌』	『佔畢集』, 『小學大全』, 『疑禮問解』	1899	필사본
『密州勝覽』	-	[1928]	필사본
『密州誌』	-	1932	목활자본
『密州徵信錄』	-	1935	목판본
『嶠南誌』	『疑禮問解』, 『佔畢齋集』, 『格齋集』, 『松溪實記』, 『月淵集』, 『今是堂集』, 『聚遠堂集』, 『鄒川集』, 『磬漢集』, 『菊潭集』, 『慕軒集』, 『釣耕庵集』, 『五休集』, 『四溟集』, 『奮忠紓難錄』, 『家禮附贅』, 『九峯集』, 『洗心亭集』, 『竹坡集』, 『覽懷堂集』, 『襄武公實紀』, 『朴節士實紀』, 『梅竹堂集』, 『星隱集』, 『聽翁集』, 『松窩集』, 『紫雲集』, 『竹圃集』, 『笑庵集』, 『星湖集』, 『冷窩集』, 『晚浦集』, 『恒齋集』, 『石荷集』, 『古鏡重磨方』, 『性理節要』, 『眉叟年譜』, 『性齋年譜』, 『克齋集』, 『小訥集』, 『東國儒賢編年』, 『氏族攷』, 『常體便覽』, 『女士須知』, 『揆感錄』	1940	신연활자본

이상의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읍지에는 서적이거나 소장 책판에 대하여 간략하게 조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읍지 작성 시 책판에 대한 망라적인 조사를 통하여 기록하기보다 앞선 읍지 자료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양의 읍지에서 밝힌 지역 소장 책판들은 밀양이 기재된 『冊板目錄』에 모두 포함된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1832년 필사된 『密陽府邑誌』에 기록된 『疑禮問解』는 密陽官에서 주관하여 새긴 뒤 책판의 보관은 밀양향교에 두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佔畢齋集』을 보관한 곳이 禮林書院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嶠南誌』에 수록된 33종의 문집을 살펴보면, 대다수 지역 출신 문사들의 저술로 밀양 간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후술하게 될 진존하는 문집의 실물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5. 간행 서적과 서지적 특성

### 5.1 간행 서적

이 장에서는 밀양 지역에서 간행된 인본에 대한 검토로 전존 간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그 밖에 간본을 수록한 고서목록 등 2차 서지자료를 통하여 지역의 출판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집이나 기타 자료에 나타나는 간행 기록 등으로 보완되는 자료를 추가하여, 밀양 지역 간행서적의 현황을 판각처 및 출판의 주체별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5.1.1 官版

밀양 지역에서 간행된 官版의 유형은 주로 관청이나 都護府의 수장인 府使가 주관하였던 출판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된다. 예컨대 관 주도의 禮書나 經書, 蒙求書의 출판 및 군수나 府使에 의한 선대 문집의 간행을 들 수가 있다.

조선시대 밀양부의 관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간행 사업으로는, 세종 13년(1431) 11월 『集註草堂杜工部詩』의 판각 사례<sup>35)</sup>가 있다. 이 판의 尹祥(1373-1455)이 쓴 발문에 따르면, 庚戌(1430) 겨울에 慶尙監司 曹致가 慶尙道에 부임하여, 『杜詩』를 出刊하기로 하고, 星州教授 韓卷에게 좋은 판본을 구하게 하였다. 그 뒤 密陽府使 柳君 등과 함께 그 이듬 해(1431) 8월 목재를 수합하고 판각을 진행하고 11월에 이룩하였으니, 文士들의 功力이 큰 것이라 일의 顛末을 기록하여 둔다<sup>36)</sup>는 내용을 밝혀 두었다. 권말 간기면의 기록에 의하면, 판의 간행 시 8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記官으로는 鄭仁悟, 吳敬立, 金繼強, 朴爲, 義[悅]이 가담하였다.

같은 해(1431) 11월 慶尙監司 曹致가 중국 사행 후 밀양에서 목판으로 번각하여 『杜詩』와 함께 간행한 판본<sup>37)</sup>으로 『新刊明本治家節要』<sup>38)</sup>도 전하고 있다. 이 판의 발문 또한 『杜詩』의 발문을 쓴 尹祥(1373-1455)이 작성하였고, 판의 간행에는 記官 朴生과 學生 金南遇 등 80여명, 監校 金仁僊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판의 출판을 주도한 慶尙道 觀察使 曹致는 같은 해(1431) 11월 인근 청도 지역에서 간행된 『春秋經左氏傳句解』의 판각에도 관여<sup>39)</sup>하고 있어,

35) 『集註草堂杜工部詩』跋. “囑于密陽府 / 使柳君之禮監督自八月始事至十一月 / 而斷手焉 … 時宣德六年辛亥 / 仲冬有日 …”

36) 『集註草堂杜工部詩』跋. “… 歲庚戌冬摠制曹致受觀風之任于 / 是道慨然有興詩教之志旁求杜詩善本 / 得會箋一部於星州教授韓卷欲繡梓而 / 廣其傳越明年秋聚材鳩工 …”

37) 『新刊明本治家節要』跋. “… 今監司 / 曹相國致奉 / 使中原幸得一本欲以廣布刊于密陽迺 / 與杜詩一時 …”

38) 『新刊明本治家節要』跋. “… / 王化誠不淺矣時宣德六年辛亥仲冬有日 / 中直大夫知大丘郡事禮泉尹祥敬跋 / 學生金南遇 剛勁 鄭仁悟 等 八十 / 禪師 性敏 …”

39) 『春秋經左氏傳句解』跋. “… 左氏傳未見刊行治春 / 秋者無以爲按歲辛亥監司曹相致都事安 / … 宣德六年十一月日 … / 都觀察黜陟使資憲大夫中軍都摠制府摠制曹致.”

특기할 만하다.

이로부터 3년 뒤인 세종 16년(1434) 5월에는 慶尙道黜陟使 辛引孫의 命에 따라 신인손 자신이 왕으로부터 내려받은 經筵 소장본 2부를 바탕으로, 경주와 밀양에서 『古今韻會舉要』를 分刊<sup>40)</sup>하게 되었다. 발문에는 나누어 새긴 경위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책의 분량이 방대하고 간행 효율성 측면에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한 의도로 여겨진다.

이 관은 慶尙道 黜陟使 辛引孫(1384-1445)이 간행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여기에 慶州府尹 金乙辛과 密陽都護府使 任從善 등 7명의 관료와 都色에 崔沂와 朴遵이 참여하였다. 또 記官으로는 朴秀, 朴生 외 5명, 각수로는 洪照, 敬倫, 宗月 등 29명이 판각에 참여하는 등 총 109명의 인원이 동원된 거질의 판각 사업이었다. 이 관은 간행 시기가 世宗朝 중기이며, 판각된 서체나 판의 형식 등 여러 면에서 원나라 판본을 그대로 번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세종 24년(1442) 11월에는 卞季良(1369-1430) 선생의 『春亭先生文集』이 密陽府에서 개간<sup>41)</sup>되었다. 이 관은 문집의 서발 기록에 따르면, 저자의 시문은 변계량 선생의 문인 鄭陟(1390-1475)이 수집하였다. 그 뒤 집현전에서 柳義孫과 金瑞陳이 校讎를 마치고 繕寫한 뒤, 선생의 貫鄉이 밀양부에서 당시 경상감사 權孟孫(1390-1456)의 주도하에 판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존 판본에 따르면 權躔(1387-1445)가 서문을 쓰고 安止(1384-1464)가 발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실제 간행에 참여한 인원들에 대한 권말의 간행 관련 기록으로, 慶尙監司 權孟孫 외에 都事 權技, 密陽都護府副使 安贊, 교정으로 朴學問과 朴楨之, 記官은 朴生, 판을 새긴 각수는 李英春 등 45명이 참여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후 15세기 중엽 문종 2년(1452) 5월 밀양부에서는 『夾注名賢十抄詩』가 중간<sup>42)</sup>되었다. 이 관은 당시 密陽府使를 맡고 있던 李伯常이 판각을 주도하였고, 발문은 權擘(1416-1465)과 密陽 儒學 李雲俊이 썼다. 두 발문에 의하면, 밀양부사가 이 책을 얻어 판각하고자 하여 權擘에게 교정을 부탁하였고, 후에 유생 朴學問이 책을 베껴썼다<sup>43)</sup>고 한다. 그리고 판각 작업은 1452년 5월에 시작하였으나, 일이 반쯤 이루어졌을 때 府使가 바뀌게 되어 새로운 府使 李瓘이 그 일을 감독하여 몇 달 만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權擘이 쓴 발문에서도 權擘 자신이 東萊를 다녀오던 중 밀양부사가 때마침 『夾注十抄詩』를 중간하고 있었는데, 교정을 자신에게 부탁한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판의 권말에 새긴 간행 참여자 명단에 따르면, 판의 書寫와 監督 및 校正의 실무는 朴學問이 담당하고, 판을 새기는 일은 李英春과 金順義가 맡았다. 그 외 李崇之 등 관원 4명과 승려 4명도 판각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2년 뒤인 단종 2년(1454) 5월 밀양부에서는 『楚辭後語』와 『楚辭辨證』을 간행하게 된다.

40) 『古今韻會舉要』跋. “韻書之來尙矣而諸家詳… 宣德 九年 甲寅 / 五月日 慶尙道觀察黜陟使通政大 / 夫兵曹左 叅議寶文閣直提學臣辛引孫 / 拜手稽首敬跋.”

41) 『春亭先生文集』刊記. “… / 記官 朴生 / 刻字前司正李英春等四十五人 / 壬戌十一月日密陽府開刊.”

42) 『夾注名賢十抄詩』權擘 跋文 및 刊記. “余來浴東萊路出密陽適見重刊夾注十抄詩 / 取看… / [密]陽府開刊 / ….”

43) 『夾注名賢十抄詩』李雲俊 「跋」. “… 囑諸校理權君學問校正然後使儒生朴學問 / 書寫而募….”

이 판은 활자본 경자자를 뒤집어 새긴 판으로 당시 密陽府使를 맡고 있던 李皎然(1413-1475)의 주도로 판목과 장인을 구하여 밀양부에서 간행<sup>44)</sup>된 사례이다. 판의 직접적인 판각 동기는 간행에 앞서 1453년 11월 都觀察黜陟使 李崇之의 밀양 방문과 그에 따른 간행의 명에서 비롯되었다. 판의 간행 시 尙州牧使 李崇之와 通德郎 李云俊이 참여하였고, 이들과 더불어 監督은 白昭, 교정은 金敬用과 朴楨之가 맡았다. 그리고 판을 새긴 이는 李英春, 金順義, 惠修, 心修, 自淸, 孫仲義의 6명이 담당하였다. 두 판본은 발문과 간기 사항이 동일하다.

같은 해(1454) 8월에는 역시 密陽府使 李皎然이 監司 李崇之(미상-1462)와 都事 李孝長(미상-1463)에게 명을 받아 밀양부에서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sup>45)</sup>를 開刊하였다. 이 판본의 권두에는 1341년에 劉仁初가 쓴 原序로 「三場文選序」가 있으며, 권말에는 孫肇瑞<sup>46)</sup>가 쓴 발문이 있다. 이에 의하면 科賦의 모범이 되는 이 책을 쉽게 구하지 못하다가, 단종 2년(1454)에 李崇之와 李孝長이 밀양부사 李皎然에게 명하여 이 판을 간행하게 한 경위<sup>47)</sup>를 밝혀 두었다. 그리고 간기에 이어 책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로 12명의 관원의 직함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에 따르면 이 판의 교정은 朴楨之가 맡고, 새긴 이는 李英春, 金順義, 惠修, 心修, 自淸, 孫仲義의 6명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얼마 뒤 성종 8년(1477) 2월 밀양부에서는 밀양부사 朴時衡<sup>48)</sup>의 주관으로 『東人詩話』를 간행<sup>49)</sup>하게 된다. 이 판의 권두에는 1474년 8월 姜希孟(1424-1483)이 작성한 서문과 1475년 3월 金守溫(1410-1481)이 작성한 서문 두 편이 연이어 수록되었고, 권말에는 서거정의 문인이었던 崔淑精(1433-1480)이 1477년 4월에 작성한 後序와 梁誠之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다. 첨부된 서문과 발문에 따르면 이 판은 1474년 무렵에 초고가 완성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고, 실제 간행은 교정과 윤문을 거쳐 崔淑精의 後序가 완성된 시점인 1477년 4월경임을 알 수 있다.

연이은 15세기 후반 성종 10년(1479) 4월 밀양부에서는 『詩傳』이 간행<sup>50)</sup>되었다. 이 판은 12권 6책본 중 영본의 2권 1책이 전존하고 있다. 전존본의 권수제는 ‘詩’이고, 판심에 ‘詩傳’이라 새겨져 있다. 권1-권10까지는 일실되어 서문 등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권말에는 金宗直(1431-1492)이 쓴 발문과 책의 간기가 남아 있어, 판의 간행 단면을 알 수 있다.

즉, 김종직은 성종 14년(1478) 10월에 쓴 발문에서 성화 14년(1478) 여름에 密山<sup>51)</sup>의 朴相公이

44) 『楚辭辨證』跋. “... 之疊鏤梓以廣其傳余 / 於是鳩材募工監掌其事不闕... 是乎書 / 府使中訓大夫兼勸農兵馬團練使李皎 / 然謹跋.”

45)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刊記. “甲戌八月日密陽府開刊.”

46) 생몰년은 미상이나, 1435년 사마시 합격한 기록과 1451년 兵曹正郎을 지낸 이력 및 1456년 고향에 은둔한 기록이 전함.

47)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跋文. “... 府使李君皎然閱文風之不古 / 欲救斯弊已有年... / 監司李相國崇之都事李公孝長命刊 / 離騷於...”

48)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밀양인 朴鴻의 아들로 1456년 생원 식년시 문과에 급제한 기록이 전함.

49) 『東人詩話』跋文. “... 當與萬世 / 共之不可以秘藏於文房而已也 / 遂令鏤梓子密陽府傳之不朽 / 云府使姓朴諱時衡丙子科榜 / 眼也時成化紀元之十三年後二 / 月初吉南原梁誠之純夫謹跋.”

50) 『詩傳』刊記. “成化十五年己亥四月日密陽府開刊.”

51) 密陽의 별칭.

세조조에 印刊한 구결이 달린 『詩書』를 가져온 경위, 鄒魯之鄉인 경상도에 經籍이 불타 탄식한 내용 등을 밝힌 뒤 자신이 가져온 판본에는 集傳도 있고, 구결도 있어 이 판을 간행하게 되었다<sup>52)</sup>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김종직이 발문을 붙여 새긴 밀양부판은 朴相公이 가져온 판의 번각본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16세기 후반 밀양부에서는 송나라 蔡沈(1167-1230)의 象數 사상을 다룬 『洪範皇極內篇圖解』가 간행<sup>53)</sup>되었다. 이 판은 2권 1책의 영본이 고려대학교에 남아 있으며, 권수의 裏面에 판각 관련 기록이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정축년(1577) 겨울에 당시 密陽府使에 부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金伯純, 즉 金克一(1522-1585)이 이 판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기에서 밝힌 ‘凝川’은 밀양의 남쪽을 가로지르는 凝川江으로 인해 밀양의 옛 지명으로 불리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또한 판의 서사는 芙蓉山人<sup>54)</sup>이 鳳城 즉 밀양과 인접한 함천에서 정서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그리고 이 판의 간행 시기 및 판의 존재 유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전하기도 한다. 이는 곧 책판 목록의 내용으로, 1576년 을해자본 『攷事撮要』에는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585년 목판본 『攷事撮要』에는 밀양 지역 책판으로 「洪範」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록은 밀양 지역에서 밀양부사 金克一의 주도로 1577년 이 판을 간행한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말 숙종 21년(1695) 겨울 密陽府에서는 金長生(1548-1631)이 禮에 관한 문답을 서술하고 논변한 『疑禮問解』를 중간<sup>55)</sup>하였다. 이 책의 초간본은 인조 24년(1646)에 간행되었으며, 이 해(1695) 密陽府에서는 판하본을 다시 써 중간하였다. 초간본이 권두에 金尙憲의 서문을 두고, 李植(1584-1647)과 申翊聖(1588-1644)의 발문의 권말에 배치한 반면, 중간본은 권두에 세편의 서문과 발을 모두 수록하고, 권말에는 간기만 새겨두었다. 즉, 권4의 본문이 끝나는 제68장의 마지막 권말제에 바로 연이어 ‘疑禮問解 卷之四 / 乙亥冬密陽府重刊’과 같이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字體와 書體로 간소하게 새겨둔 특징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 판이 새겨진 乙亥年에 대하여 일부 기관의 목록이나 해제에 高宗 12년(1875) ‘乙亥’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임을 지적해 둔다. 왜냐하면 「冊板目錄」 등의 기록에 따르면, 밀양부에는 이미 1778년 이전에 『疑禮問解』를 새긴 판목이 있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추정하면, 『疑禮問解』 중간본의 간기에서 밝힌 ‘乙亥’는 1695년 또는 1755년 둘 중 하나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밖에 순조 9년(1809) 밀양부에서는 당시 재임 중이던 密陽府使 成肯柱에 의하여 그의 7대

52) 『詩傳』跋文. “成化十四年夏密山朴相公據出按嶺表 / … 是歲戊戌十月日善山 / 都護府使金宗直謹跋.”

53) 『洪範皇極內篇圖解』刊記. “丁丑冬倩金伯純印于凝川芙蓉山人書于鳳城.”

54) 芙蓉山人은 信聰에게 불경을 배우고, 威鳳의 문하생이자 선조 조에 활동한 승려 靈觀으로 추정된다. 특히, 승려 靈觀은 불교와 도교에 능했다고 알려져, 이 판의 서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활동한 金富倫(1531-1598)이나 李滉(1501-1570) 등과 교유한 내용이 문집 등에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55) 『疑禮問解』刊記. “乙亥冬密陽府重刊.”

선조인 成渾(1535-1598)의 『牛溪先生文集』이 중간<sup>56)</sup>되기도 하였다. 문집의 간행 기록에 따르면, 이 판은 군수였던 成肯柱가 密陽府에서 간행하여 책판은 인접한 昌寧에 成氏를 배향한 勿溪書院에 보관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밀양부 간행 서적을 일람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밀양 지역 官版 목록

간행처	서명	권책수	편저자	관중	간행년	소장처
密陽府	『新刊明本治家節要』	2권 1책	范立本 著	목판	1431	고려대
"	『集註草堂杜工部詩』	8권 1책	杜甫 著	목판	1431	공인박물관, 규장각, 『治家節要』 발문
"	『古今韻會舉要』	3권 1책	熊忠 編	목판	1434	국박, 개인소장
"	『春亭先生文集』	12권 5책	卞季良 著	목판	1442	고려대, 성암
"	『夾注名賢十抄詩』	3권 3책	編者 未詳	목판	1452	한중연, 규장각
"	『楚辭後語』	6권	朱熹 編	목판	1454	국중, 장서각
"	『楚辭辨證』	2권	朱熹 編	목판	1454	장서각
"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	8권 2책	劉仁初 編	목판	1454	규장각
"	『東人詩話』	2권 1책	徐居正 撰	목판	1477	계명대, 국중
"	『詩傳』	영본 2권 1책	朱熹 集傳	목판	1479	규장각
"	『洪範皇極內篇圖解』	영본 2권 1책	蔡沈 編	목판	1577	고려대
"	『疑禮問解』	4권 4책	金長生 著	목판	1695	계명대, 영남대
"	『牛溪先生文集』	6권 6책	成渾 著	목판	1809	부산대

### 5.1.2 寺剞版

밀양 지역 사찰의 출판 활동은 현재까지 사찰이 잘 보존되고 있는 萬魚山 万魚寺와 載嶽山<sup>57)</sup>表忠寺의 불서 간행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간행 사업은 시기적으로 15세기부터 시작되어, 20세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지역 사찰 출판의 최초 사례로 15세기 후반 세조 12년(1466) 7월 밀양 萬魚寺에서 새긴 『六經合部』의 판각 사업<sup>58)</sup>을 들 수 있다. 이 판은 『金剛經』을 포함한 육경이 모두 합쳐져 있으며, 간행 참여자는 68명의 시주와 幹善 1명, 緣化 1명, 각수로는 正心과 祖林이 참여하였다.

萬魚寺의 출판 활동은 이후로도 계속되어 2년 뒤 세조 14년(1468) 3월에 孫肇瑞, 朴孟謙, 全思德의 일반인 시주와 大禪師 性峯, 義順, 曹溪老衲 頓旭 등 40여 명의 참여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

56) 『牛溪先生文集』 刊記. “先生下世後二百十二年己巳七代孫肯柱宰密 / 陽重刊藏板於昌寧勿溪書院.”

57) 『新增東國輿地勝覽』 密陽都護府 山川條에는 ‘載嶽山’으로 표기되었으나, 이후 ‘載岳山’으로도 표기된 사례도 있음.

58) 『六經合部』 刊記. “慶尙道密陽地萬魚寺開板 / … / 成化貳年丙戌孟秋下旬曹溪老衲頓旭跋 / 緣化 戒正 / 刻手 正心 祖林.”

『陀羅尼經』과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 간행<sup>59)</sup>되었다. 이 두 판본은 동일한 간기를 가지는 다른 경전이 합철된 사례로, 간행의 실무는 緣化道人 正心이 주도하고, 刻手는 祖林이 참여하였다. 이 판은 판형이 고려 말의 절첩 형식을 그대로 새겨낸 특징이 있어 판심이나 계선 등이 나타나지 않고, 張次도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16세기 밀양 지역의 사찰에는 인본이나 간행 사례가 보이지 않다가 17세기 초반 출판 활동이 다시 재개되었다. 즉, 광해군 4년(1612) 4월 表忠寺의 『四溟堂大師集』 판각이 그러한 예이다. 이 문집의 서문은 許筠이 썼고, 발문은 四溟堂 惟政(1544-1610)의 직계 제자인 雷默堂 處英이 작성<sup>60)</sup>하였다.

이 책은 별도의 간기는 확인되지 않으나, 제자 處英이 작성한 초간본 발문의 내용과 문집을 새긴 판목이 표충사에 보관되어온 정황과 현재까지 판목이 표충사에 남아 있는 점, 그리고 18세기 이후 문집이 꾸준히 인출되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밀양 표충사 각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효종 3년(1652) 8월에 작성된 公峰山人 性一의 誌文에 따르면, 1612년 초간본 판목이 불타 없어져서 사찰에서 재차 1652년 8월에 重刊한 사실<sup>61)</sup>을 밝혀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四溟堂大師集』 판본에는 1739년 표충사에서 간행된 『松雲大師 奮忠紓難錄』의 간기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四溟堂大師集』의 간기에 대해 박상국은 ‘萬曆壬子雷默堂跋密陽表忠寺刊’이라 기록<sup>62)</sup>해 놓았으나, 개인 소장본으로 실물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조 16년(1638) 6월에는 밀양 載岳山 靈井寺에서는 『緇門警訓』<sup>63)</sup> 및 『緇門警訓續集』이 간행되었다. 이 때 간행된 『續集』은 별도로 간행되었다기보다 『緇門警訓』의 하권에 첨부되어 합철 간행된 사례이다.

같은 해(1638) 11월에는 靈井寺에서 『妙法蓮華經』이 간행<sup>64)</sup>되기도 하였다. 이 판본은 居士 信安이 化主로 참여하였고, 大施主로는 崔起陽 등 4명과 승려 圓應 등 9명이 물자를 보냈다. 판의 교정은 惠一과 勝一이 담당하였고, 판을 새긴 사람은 승려 각수로 法令, 太信, 惠英, 天海, 一珠, 一俊, 忠孝, 太甘, 竺岑, 一玉, 六行의 11인이 분담하였다. 또한 판각의 실무에 있어서 판을 재단한 이는 승려 一還이었다. 이 판은 판의 새겨진 형식상 현존하는 여러 법화경의 형태로 미루어, 刊經都監에서 성종 연간 1470년 처음 간행된 大字本 법화경을 번각한 계통임을 알 수 있다.

또 인조 20년(1642) 밀양의 載岳寺에서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 開板<sup>65)</sup>되기도 하였

59)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刊記. “... / 成化四年三月日 密陽地万魚寺開板 / 朴石老 兩主...”

60) 『四溟堂大師集』跋文. “... 作者之君子歲 / 皇明萬曆壬子孟夏哉生魄雷默堂謹跋.”

61) 『四溟堂大師集』誌文. “... / 者遂就湮滅而無傳則 ... / 不計蚊山之負鳩工重刊永圖不朽噫天道 / ... 歲壬辰仲秋日門人公峰山人性一謹誌.”

62)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477.

63) 『緇門警訓』刊記. “崇禎戊寅六月日慶尙密陽載藥山靈井寺開板.”

64) 『妙法蓮華經』刊記. “崇禎十一年戊寅十一月日 慶尙道密陽府載岳山靈井寺開刊.”

65) 尹炳泰, 『韓國書誌年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78.

다. 載岳寺는 表忠寺의 별칭으로 表忠祠, 靈井寺 모두 같은 사찰을 지칭한다. 이 경전은 安春根 소장본으로 현재 소재는 불명확하다.

한편, 현종 2년(1661) 6월에는 載岳山 靈井寺에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 개판<sup>66)</sup>되었다. 이 판의 판각은 경전의 분량이 방대하고, 동원된 인원도 상당수에 달한다. 6권으로 편성된 본문의 변란밖에는 판을 새긴 각수명이 음각 또는 양각으로 새겨진 점이 특이하다. 또한 권1의 말미에는 127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으며, 본문의 변란 밖에도 판을 새긴 각수 뿐 아니라 大施主 등의 명단을 따로 판각하여 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권5의 말미에도 판을 새긴 사람의 명단으로 應俊, 元明 등 39명의 刻秩을 밝혀 두었고, 권6의 경전 발문에 이어 山中大德秩과 淳悅, 李時一, 淸學 등 29명의 刻秩을 추가로 나열되어 있다. 또 목판을 재단한 鍊板者로 勝閑 등 6명의 인원과 幹化 沖一 比丘 외 2명의 이름이 追刻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18세기 초 숙종 34년(1708) 4월 밀양 終南山 靈隱寺에서는 『妙法蓮華經』이 개판<sup>67)</sup>되었다. 이 판은 완질이 전하지 않아 전체 간행 참여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권1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판을 새긴 이는 覺幻과 法玄이었고, 대시주로는 雪澄, 雪行 외 4명, 山中大德 5명 등 28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靈隱寺는 당시 紫閣山이라고도 불리었던 밀양 南山里 終南山의 북쪽에 있던 절로 현재는 寺址만 남아 있다.

이후 숙종 37년(1711) 4월경<sup>68)</sup>에는 東溪 敬一(1636-1695)의 시문 및 작품을 모아 수록한 『東溪集』이 개간되었다. 이 판의 간행에는 승려 尙初가 판하본을 쓰고, 助緣으로 尙淳 외 36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執綱 熙贊, 書記 法澄, 鍊板 惠淨, 別座 玄坦, 供養主로 偉惠와 時學, 그 외 施主者 등 모두 61명이 참여하였다.

18세기 중엽 표충사에서는 松雲大師의 5대 범손인 南鵬 禪師가 영조 14년(1738)에 사찰을 크게 중창하였고, 사찰의 건물을 정비하며 四溟堂의 비석을 세우는 등 모든 사우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당시 표충사는 重興寺라는 별칭으로 불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던 바, 그 해 사찰에서 간행된 『密陽靈鷲山重興寺表忠祠誌』의 판각<sup>69)</sup>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 영조 15년(1739) 7월에는 『松雲大師奮忠紓難錄』이 개판<sup>70)</sup>되었다. 이 판의 서문은 咸原府院君이었던 兢齋 魚有龜(1675-1740)가 썼고, 판이 간행되기 한 해 전인 영조 14년(1738) 7월에 작성한 金仲禮 즉, 金在魯(1682-1759)의 서문도 첨부되어 있다. 특히 김재로의 서문에 따르면, 책의 제목인 ‘奮忠紓難錄’은 김재로 본인이 정하였으며, 책의 교정과 산삭은 申維翰(1681-1752)이 담당한 사실<sup>71)</sup>이 확인된다. 이 책의 간역 업무에는 都監 曺 首頭로 儀淸, 公員으로 圓信, 靈性

6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刊記. “順治十八年辛丑六月日慶尙道密陽地載岳山靈井寺開板.”

67) 『妙法蓮華經』 권1의 刊記. “康熙四十七年戊子四月日慶尙左道密陽府南終 / 南山靈隱寺開板.”

68) 책의 간기에는 ‘… / 康熙五十年慶尙左密陽載岳山靈井 / 寺開刊’으로 판각된 시점을 1711년으로 밝히고 있으나, 발문의 작성 시점이 ‘崇禎後八十四年(1711)辛卯孟夏門人件 / 雲道人慈鑑謹識’로 되어 있어, 발문의 작성 시점 또는 그 이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69) 『密陽靈鷲山重興寺表忠祠誌』의 서문. “… 南鵬慨其然而發歎乾隆戊午具由上言 ….”

70) 『松雲大師奮忠紓難錄』 刊記. “上之十五年己未七月日密州靈鷲山表忠寺開刊.”

등 9명, 鍊板 李世春, 書記 卽淸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영조 43년(1767) 7월에는 밀양 華岳山 鳳泉寺<sup>72)</sup>에서 箕城大師(1693-1763)의 『請擇法報恩文』이 開刊<sup>73)</sup>되었다. 이 책은 箕城大師의 가르침을 담은 내용으로,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책의 간행은 竹溪山人 柳東新이 발원하고 직접 판을 서사하였으며, 시주로는 妙熙 등 6명, 각수로는 戒仁, 謹性, 財帛 등 모두 9명이 참여하였다. 판각을 주관한 화주 겸 主事는 歸潤이었고, 그 밖에 三綱으로 奉守, 福淳, 浪澄과 鍊板은 釋坦과 德宗이 맡고, 기타 참여자로 鳳翼 등 13명이 더 가담하였다. 더불어 책의 권말 간기에 표기된 내용을 미루어, 이 판은 후술할 『念佛還鄉曲』과 더불어 대구의 桐華寺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1767) 7월 鳳泉寺 雲住庵에서는 『念佛還鄉曲』이 함께 開刊<sup>74)</sup>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승려 箕城大師가 염불을 하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밝힌 불교 가사집이다. 책의 간행에는 牡洞散人이 서사자로 참여하였고, 設辦主事는 化主로 여겨지고 승려 歸潤이 맡았다. 그 외 공양주로 奉管 등 3명이 힘을 보탰다.

그리고 18세기 말에는 표충사의 기문과 제영을 모아서 편집한 『密州表忠祠題詠』이 간행<sup>75)</sup>되었다. 이 책은 권말에 정확한 간기를 새겨두지 않았으나, 발문의 작성 시점으로 정조 2년(1778) 9월경에 새겨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책을 새긴 전체 판목이 사찰에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인본은 규장각과 미국 UC버클리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19세기 말 表忠寺의 출판 활동도 두드러진다. 인본은 남아 있지 않으나, 사찰에 남아있는 목판에 대한 기록으로 미루어, 고종 18년(1881) 8월에는 『楞嚴神呪陀羅尼經』이 간행<sup>76)</sup>되었다. 이 판은 성책을 이루기 위한 판각이 아니라, 휴대용이나 독송용으로 판각한 다라니판임을 알 수 있다. 사찰에 전하는 목판 또한 한 판 뿐이고, 판에는 붉은색 경면주사로 인출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표충사에는 이와 같은 單板의 陀羅尼가 여러 종 있으나, 밀양 지역 간기를 가진 것은 이 판이 유일하다. 이 陀羅尼의 판각에는 僧統 定祐와 書記 正寅 및 三甫 宣石이 참여하였고, 밀양 표충사에서 서사된 판을 崔水가 새겼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광무 2년(1898) 한 해에만 표충사에서 일련의 불서 판각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해(1898) 5월에는 『佛說高王觀世音經』이 표충사의 경내 西上庵에서 판각<sup>77)</sup>되었다. 그리고 인본과 사찰의 판목 또한 함께 남아있는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sup>78)</sup> 및 『佛說

71) 『松雲大師奮忠紓難錄』序文. “... 余故改題 / 曰奮忠紓難錄而屬申君 / 維翰釐正增刪附以他設可 / 參互者 ...”

72) 權相老, 『韓國寺刹事典 上』(서울: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 刊行委員會, 1994), 836, ‘경상남도 밀양 화악산에 있었으며, 창건 연대는 알 수 없고 신라 고찰로 알려져 있다가 조선시대에 폐사되었다. 『伽藍考』에 따르면 밀양부의 북쪽 大項里에 있는 화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였다고 함.

73) 『請擇法報恩文』刊記. “乾隆三十二年丁亥閏七月十五日慶尙左道密 / 陽地華岳山鳳泉寺開刊移在于桐華寺.”

74) 『念佛還鄉曲』刊記. “乾隆三十二年丁亥閏七月十五日慶尙道密陽華 / 岳山鳳泉寺開刊移在于桐華寺.”

75) 『密州表忠祠題詠』跋文. “乾隆四十三年季戊戌九月日九世法孫毅旻謹跋.”

76) 『楞嚴神呪陀羅尼經』刊記. “光緒七年辛巳八月日 / 僧統 定祐 / 書記 正寅 / 三甫 宣石 / 刻 崔水 / 書密陽表忠寺.”

77) 『佛說高王觀世音經』木板 刊記. “光武二年戊戌五月日慶尙道密陽表忠寺西上庵開刊.”

阿彌陀經』과 『懺悔法』, 『佛說夢授經』의 4종의 경전 또한 이 해(1898) 5월에 함께 새겨진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판들은 행자수는 물론, 판의 형식과 서체까지 완전히 일치하여 같은 시기 판각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1898) 5월에는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 간행<sup>79)</sup>되기도 하였다. 이 판의 판각에는 일반인 시주와 승려 시주 146명이 참여하였고, 판의 서사는 元燁이 맡았다. 판을 새긴 이는 대구 출신 각수 金錫表와 金仁澤, 그리고 副刻手로 道元이 참여하였고, 化主는 승임이 담당하여, 載藥山 표충사에서 목판으로 開刊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상에서 서술한 밀양 지역의 사찰 간행 서적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밀양 지역 寺刹版 목록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종	간행년	소장처
萬魚寺	『六經合部』	1책	未詳	목판	1466	개인소장
萬魚寺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책	佛陀波利 譯	목판	1468	국중
萬魚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책	鳩摩羅什 譯	목판	1468	국중
表忠寺	『四溟堂大師集』	7권 1책	惟政 著	목판	1612	동양문고
靈井寺	『緇門警訓(續集)』	2권 2책	如喬 編	목판	1638	장서각
靈井寺	『妙法蓮華經』	7권 7책	鳩摩羅什 譯	목판	1638	영남대, 계명대
載岳寺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1책	未詳	목판	1642	安春根 소장본
表忠寺	『四溟堂大師集』	7권 1책	惟政 著	목판	1652	동국대, 국중
靈井寺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6권 5책	佛陀多羅 譯	목판	1661	국중, 영남대
靈隱寺	『妙法蓮華經』	영본 1책	鳩摩羅什 譯	목판	1708	표충사, 통도사
靈井寺	『東溪集』	4권 1책	東溪 敬一 著	목판	1711	동국대, 개인소장
表忠寺 [表忠祠]	『密陽靈鷲山重興寺表忠祠誌』	1책	南鵬 著	목판	1738	表忠寺, 重興寺는 表忠祠의 별칭
表忠寺	『松雲大師奮忠紓難錄』	1책	惟政 著	목판	1738	계명대, 국중
鳳泉寺	『請擇法報恩文』	1책	箕城大師 著	목판	1767	계명대, 고려대
鳳泉寺	『念佛還鄉曲』	1책	箕城大師 著	목판	1767	장서각, 계명대
表忠寺	『密州表忠祠題詠』	1책	南鵬 等編	목판	1778	규장각, 버클리대
"	『楞嚴神呪陀羅尼經』	1권	未詳	목판	1881	表忠寺
"	『佛說高王觀世音經』	1책	未詳	목판	1898	表忠寺
"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1책	法天 譯	목판	1898	表忠寺
"	『佛說阿彌陀經』	1책	鳩摩羅什 譯	목판	1898	表忠寺
"	『懺悔法』	1책	未詳	목판	1898	表忠寺
"	『佛說夢授經』	1책	未詳	목판	1898	表忠寺
"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1책	三藏般若 譯	목판	1898	국중, 表忠寺

78)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刊記. “光武二年戊戌五月慶尙道密陽郡載藥山表忠寺開刊.”

79)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刊記. “光武二年戊戌五月日慶尙道密陽郡載藥山表忠寺開刊.”

### 5.1.3 書院 및 齋舍版

밀양 지역에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중종 37년(1542) 영남의 順興 지역에 백운동서원이 사액된 이후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었다. 즉, 16세기 중엽 영남 일대에서는 많은 서원들이 생겨났고, 밀양 지역에서도 그 시작은 명종 22년(1567) 김종직을 추모하기 위한 德城書院<sup>80)</sup>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물론, 이 지역에서는 이전 시기에도 서원의 전신이 없지 않았으며, 齋舍나 祠宇의 형태로 선현 배향과 일부에서 강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書院과 齋舍는 명칭과 기능면에서 구분이 모호하여, 興衰를 거듭하면서 서원이 齋로 불리거나 다시 강학당 등을 갖춰 서원으로 정비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의 서원은 禮林書院, 三江書院 등 4곳으로 밝히고<sup>81)</sup> 있으나, 실제 조선 중기 이후 이보다 많은 서원들이 건립되어 유지되다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밀양 지역 서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출판 활동은 16세기 중엽인 명종 22년(1567) 창건된 예림서원의 刊役 사례이다. 당시 禮林書院의 명칭은 퇴계 이황의 친필 편액이 걸린 것으로 말미암아 估畢書院으로 불리었다. 이 서원에서는 선조 14년(1581) 여름 갑인자로 새긴 『近思錄』의 번각<sup>82)</sup>이 이루어졌다. 이 판은 송나라 葉采가 집해한 판본으로 1176년 4월에 呂祖謙이 쓴 原序와 1248년의 葉棨 서문이 수록되었다. 간행 사항으로 제14권의 말미에는 제7행-제9행의 3행에 걸쳐 大字의 篆書로 된 양각의 牌記로 점필서원에서 판각한 기록을 새겨 두었다.

禮林書院의 출판 활동은 17세기에도 이어져 인조 27년(1649)에 『估畢齋先生文集』이 간행<sup>83)</sup>되기도 하였다. 『估畢齋集』은 기록과 인본을 아울러 판단하면, 7차례 이상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4차례는 밀양 또는 밀양의 예림서원에서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1649년 『估畢齋集』과 함께 간행된 『彝尊錄』에도 동일한 간기가 나타난다.

이 판의 간행 시기에 대하여 일부 기관의 목록에는 1709년 ‘己丑’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간행을 주도한 李曼(1605-1664)의 생몰년을 감안하면, 1649년 ‘己丑’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기를 거듭하여 18세기 후반 정조 13년(1789) 11월에는 『估畢齋集』에 재차 예림서원에서 간행<sup>84)</sup>되었다. 이 판은 별도의 간기는 없으나 권두의 서문에 따르면, 李獻慶(1719-1791)이 서문을 짓고, 『年譜』와 『門人錄』을 교정하여 간행한 정황<sup>85)</sup>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80) 창건 이후 한동안 德城書院, 估畢書院으로 명명되다 인조 12년(1634) 이후 ‘禮林書院’으로 불림.

81)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9), 19.

82) 『近思錄』 刊記. “萬曆辛巳夏 / 估畢書院刊.”

83) 『估畢齋集』 刊記. “弘治十年丁巳(1497)始得錄梓壬辰兵燹(1592)泯沒不傳百餘年後至己丑(1649) / 文集則方伯李公曼便爲印布彝尊錄則重刊于禮林書院.”

84) 『估畢齋集』 序文 및 『估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제2장 『事實』. “…孫金植而文集板本 / 之刊缺外假爲先之名內懷營私之計稱以重刊閱 / 忽…粧出熄謗藏垢之計私設刊所於 / 密陽 ….”

85) 『估畢齋集』 序文. “…書多少又奚論也刊行數百 / 年迄無弁卷之文今先生之嗣孫相度 / 甫來請於不佞且以先生年譜屬之曰 / 子其勸正之不佞辭以非其人卒不 / 得辭者雖未得御於先生今得爲 / 役於先生亦後學之一幸故也

이 지역의 판각 활동으로 현재의 밀성박씨 朴葦 장군의 후손들이 활동하였던 萬雲齋와 그 안의 정자에 해당하는 陟瞻臺<sup>86)</sup>에서 새긴 목판본 한호의 千字文 판본<sup>87)</sup>을 들 수 있다. 이 판은 1754년 중간된 책을 저본으로 1868년 밀양 陟瞻臺에서 滄樊 朴海徹 선생이 간행을 도모한 판이다. 애초에 內閣印本을 보고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內閣의 판도 變亂으로 남아 있지 않아 집에 소장하고 있던 책을 내어 이를 저본으로 河璣秉에게 부탁하여 목판에 뒤집어 새긴 번각본에 해당한다.

한편, 고종 6년(1869) 11월 예림서원에서는 김종직의 『佔畢齋集』이 재차 중간되었다. 이 판본은 『佔畢齋集』의 세 번째 중간본으로 흔히 일컫는 ‘己巳本’에 해당한다. 이 기사본은 시집 8권과 문집 2권 및 연보와 부록 등 모두 합 9책으로 편성되었다. 이 판의 『詩集』에 해당하는 제8권의 권말 본문 내용을 마무리 한 뒤에는 판의 간기 사항을 밝혀두었다. 즉, 제1-3행에는 ‘弘治十年丁巳始得錄梓壬辰兵燹泯沒不傳百 / 餘年後至己丑方伯李公曼便爲印布歲久板朽恐 / 其失傳’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선 己丑本の 간기 사항 중 일부 문구만 바꾸어 서술하고, 그 다음 2행에 걸쳐 이 판의 간기인 ‘崇禎紀元後四己巳陽復月下澣十三代孫植重 / 刊于密陽禮林書院’이라는 기록을 새겨 두었다. 책의 간기에서 밝힌 己巳年은 간행을 도모한 김종직의 13세손 金植(1807-1876)의 생몰년으로 미루어, 1869년 ‘己巳’임을 알 수 있다. 기록 상 ‘崇禎紀元後四己巳’인 1809년과 혼돈의 여지가 있다. 이후 『佔畢齋集』은 1892년 2월에도 밀양에서 재차 간행<sup>88)</sup>되기도 하였다. 간행 장소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예림서원에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선생의 후손인 金啓賢과 金昌鉉 등과 함께 도모한 정황을 밝혀두었다. 고종 29년(1892) 宋秉璿(1836-1905)이 발문을 붙이고, 李[金/憲]永(1837-1907)의 識가 붙어 있다.

『佔畢齋集』 기사본이 간행된 바로 이듬 해(1870) 9월 禮林書院에서는 『續彝尊錄』이 간행<sup>89)</sup>되기도 하였다. 이 판의 서문은 安東後人 溪山 金洙根(1798-1854)이 작성하였고, 발문은 당시 密陽府使를 맡고 있던 李彙寧(1788-1861)이 썼다. 이 판의 간행 시점에 대하여 일부 기관의 목록에서는 1810년인 ‘庚午’로 판정하고 있으나, 1810년은 발문을 작성한 李彙寧이 23살에 불과하고, 벼슬을 시작하기 전의 시점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밀양부사가 발문을 작성한 뒤 바로 간행으로 착수되지 못하다가, 간행을 도모하고 발문을 작성한 李彙寧의 사후 9년 뒤 1870년 예림서원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편, 20세기 이후에도 예림서원의 출판 활동은 지속되었다. 예컨대, 1907년 12월 『密城朴氏族譜』를 필두<sup>90)</sup>로, 1925년 6월에는 『密城朴氏杏山波大同譜』<sup>91)</sup>, 1930년 9월에는 『思竹堂集』<sup>92)</sup>이 간행되

遂 / 敢爲之序如此 / 己酉陽復之月完山後學 / 李獻慶謹序。”

86) 아버지의 묘소가 바라보이는 지점에 지은 정자라는 이름에서 유래.

87) 남권희, “1650년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韓濩書 千字文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연구』 제2호(2001), 287-384.

88) 『佔畢齋集』跋文. “… 則非先生誰歸哉遺集刊板 / 久而剝缺搢紳章甫與後孫啓鉉昌鉉合謀修完之 / 功既訖河君台運以多士之意 … / 崇禎紀元後五壬辰端陽後學恩津宋秉璿謹跋.”

89) 『續彝尊錄』刊記. “崇禎紀元後四庚午菊月上澣施得鉉梓於密陽 / 密陽禮林書院.”

90) 『密城朴氏族譜』刊記. “丁未十二月日禮林齋印刊”

었다. 禮林書院은 서원의 강당을 제외한 東西齋의 건물들로 말미암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엽까지는 禮林齋로 불리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한 1926년 8월에 德陽齋에서는 광주김씨 矩翁 金太乙(1530-1571) 선생의 유집을 정리한 『矩翁先生遺稿』가 간행<sup>93)</sup>되었다. 판권지에 따르면 金相哲이 간행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德陽齋는 廣州金氏 九峯 金守訥(1563-1626) 선생을 祀享하던 곳으로 현재까지 건물이 밀양 하남읍에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같은 해(1926) 『廣州金氏世系譜』가 『矩翁遺稿』를 찍은 동일한 목활자로 인행<sup>94)</sup>되기도 하였다.

한편, 1928년 4월에는 聚星齋에서는 廣州安氏 石荷 安鍾憲(1841-1907)의 문집인 『石荷先生文集』이 그의 후손에 의하여 간행<sup>95)</sup>되었다. 聚星齋는 조선 중기 문신인 廣州安氏 安岫(1496-미상)이 창건한 곳으로, 자신이 은거하면서 교육 활동도 병행하였던 곳이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건물은 여러 차례 중수되었으며, 현재까지 밀양 初同面 星萬里에 남아 있다.

그 밖에 陟瞻臺의 출판 활동도 20세기 이후에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1920년에는 이 陟瞻臺에서 밀성박씨 庚申譜로 일컫어지는 靖國君派<sup>96)</sup>의 족보인 목활자본 『密城朴氏世譜』가 간행<sup>97)</sup>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35년 10월 禮林齋에서는 『魚變堂實記』가 간행되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활동한 밀양 박씨 朴坤(1391-1454)의 문집을 목활자로 찍은 판본이다. 이 판은 국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동국대학교 소장본의 판권지에 1935년 禮林齋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사실<sup>98)</sup>을 밝혀두어 목록 상 간행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장기관 방문을 통한 간행 기록 확인 시 판권지가 떨어져 나가 식별이 불가하였다. 하지만 간행의 정황상 밀양 박씨 朴坤의 10세손 朴起羽가 識를 작성하고, 魚變堂 또한 조선시대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까지도 밀양 무안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禮林齋 간행의 판본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禮林齋 판본<sup>99)</sup>으로 1936년 5월의 『密州徵信錄』<sup>100)</sup>, 1938년 3월의 『佔畢齋先生文集』<sup>101)</sup>, 1938년 3월의 『密州詩選』<sup>102)</sup>이 전한다. 또 1936년 10월 徹雲齋에서는 孫肇瑞<sup>103)</sup>의 문집인 『格齋先

91) 『密城朴氏杏山波大同譜』刊記. “乙丑季夏少望日密陽郡後沙浦禮林齋譜所刊.”

92) 『思竹堂集』刊記. “昭和十五年九月日發行… / 印刷所 禮林齋.”

93) 『矩翁先生遺稿』刊記. “大正十五年八月… / 印刷所 德陽齋.”

94) 『廣州金氏世系譜』판권지.

95) 『石荷先生文集』刊記. “昭和三年四月日發行.”

96) 고려문신 朴葦를 派朝로 하는 支派.

97) 1920년 刊 木活字本 『密城朴氏世譜』 권말 간기. “新羅紀元一千九百七十七年 / 歲庚申刊于陟瞻臺.”

98) 동국대학교 도서관 목록, 『[刊寫地未詳]: 禮林齋, 昭和 10(1935)』

99)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板本考,” 『인간과 문화연구』 제9집(2004), 12-14.

100) 『密州徵信錄』刊記. “昭和十五年五月… / 發行所 禮林齋.”

101) 『佔畢齋先生文集』跋文. “戊寅三月日金泰鎮謹識.”

102) 『密州詩選』刊記. “昭和十三年三月日… / 發行所 禮林齋.”

103)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1432년 생원시 합격한 사실과 1451년 兵曹正郎에 임한 사실 등 1457년 단종 승하시의

生文集』三刊本이 그의 후손인 孫基綵의 주도 하에 간행<sup>104</sup>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한 밀양 지역 서원 및 齋舍 간행 서적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밀양 지역 書院 및 齋舍版 목록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종	간행년	소장처
佔畢書院	『近思錄』	영본 3책	朱熹 編	목판	1581	고려대
禮林書院	『彝尊錄』	1책	金宗直 撰	목판	1649	규장각
禮林書院	『佔畢齋集』	불분권 7책	金宗直 著	목판	1649	존경각
禮林書院	『佔畢齋集』	10책	金宗直 著	목판	1789	연세대, 전남대
萬雲齋 陟瞻臺	『千字文』	1책	韓濩 書	목판	1868	개인소장
禮林書院	『佔畢齋集』	8권 4책	金宗直 著	목판	1869	부산대
禮林書院	『續彝尊錄』	1책	金宗直 著	목활자	1870	계명대
[禮林書院]	『佔畢齋集』	8책	金宗直 著	목판	1892	경상대
萬雲齋 陟瞻臺	『密城朴氏世譜』	10권 8책	朴英俊 等編	목활자	1920	영남대, 국중
禮林齋	『密城朴氏杏山波大同譜』	32책	朴尙鎰 等編	목활자	1925	장서각
德陽齋	『矩翁先生遺稿』	2권 1책	金太乙 著	목활자	1926	국중
德陽齋	『廣州金氏世系譜』	5권 5책	金相哲 編	목활자	1926	국중
聚星齋	『石荷先生文集』	13권 7책	安鍾惠 著	목판	1928	동국대
禮林齋	『思竹堂集』	4권 2책	朴元漢 編	목활자	1930	국중
禮林齋	『魚變堂實記』	1권 1책	朴坤 著	목활자	1935	동국대
禮林齋	『密州徵信錄』	6권 4책	安秉禧 編	목활자	1936	국중
徹雲齋	『格齋先生文集』	5권 1책	孫肇瑞 著	목판	1936	부산대
禮林齋	『佔畢齋集』	10책	金宗直 著	목판	1938	경북대
禮林齋	『密州詩選』	2권 1책	安秉禧 編	목활자	1938	국중

### 5.1.4 私家版

관청이나 사찰 또는 서원의 출판 활동과 더불어 밀양 지역 私家에서도 수요에 따라 필요한 서적의 간행이나 출판에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가관의 출판은 시기적으로는 주로 18세기 이후에 확인된다. 또한 사가관의 대부분은 후손들에 의한 선대의 문집이나 遺稿 및 실기류 간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양 지역 사가관의 출판 사례로 먼저, 성종 10년(1479) 己亥 3월에 孫肇瑞의 둘째 아들 孫胤漢에 의하여 자신의 아버지 문집인 『格齋先生文集』이 간행<sup>105</sup>되었다. 이 문집의 실물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문집의 서문에 따르면 이 판이 밀양에서 간행된 사실<sup>106</sup>이 밝혀져 있고, 간행을 주도한

기록이 문집에 남아 있음. 일부 연구 논문에서는 1410년경 출생하여 1471년경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

104) 『格齋先生文集』 版權紙. “昭和十一年十月 … / 印刷 密陽郡山外面茶竹里 / 徹雲齋.”

105) 『格齋先生文集』 『舊刊集跋文』. “… 合四冊余於己亥三月鳩 / 集雕工六閱月而告成其所以汲汲鏤板以壽其傳 / 者正以 ….”

이는 孫胤漢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당시 간행된 초간본은 간행 뒤 병란으로 소실되어 없어진 정황 또한 기록되어 있다.

그 뒤 영조 1년(1725) 8월에는 밀양의 中山里 사가에서 『增補重刊昌原孔氏族譜』가 간행되었다. 이 판은 사가관으로는 특이하게 권말에 후손인 孔世標의 발문<sup>107)</sup>에 이어 2행에 걸쳐 大字로 새긴 ‘密陽開刊 / 闕里藏板’의 간기를 새겨두었다. 또한 책의 발문에 이어서는 밀양 中山里에서 함께 간역에 참여한 인원들도 자세하게 밝혀 두어, 監刻으로 孔益成 외 5명, 寫字 宋道恭과 孔孝源의 2인의 명단을 기재하였다. 그 밖에도 募板으로 孔啓達 외 3인, 刻手로는 玄應, 順源, 處還 등 11명, 炊飯 1명, 代木 1명, 冊工으로는 姜翊周가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여 두었다. 이러한 내용은 족보 판각 시 다양한 職役의 참여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권말에 밝힌 동원 인원은 모두 32명이다. 족보판의 실제 간행 시점은 권말의 지문 작성 시점<sup>108)</sup>인 1725년 8월 9일경으로 여겨진다.

한편, 1479년 3월에 초간되었던 『格齋先生文集』은 밀양의 사가에서 후손 孫相龍(1731-1791)에 의하여 1771년 12월에 중간<sup>109)</sup>되기도 하였다. 이 판의 간행 시기에 대하여 일부 기관의 목록이나 해제에서는 1831년 辛卯年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간 발문을 작성한 金在淳(1732-1790)의 생몰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誤識임을 밝혀둔다. 『格齋集』은 1915년에 다시 한 번 후손 孫基綵에 의하여 三刊되었으며, 밀양의 徹雲齋에서 인쇄되기도 하였다.

순조 25년(1825) 3월에는 孫起陽(1559-1617)의 7세손 孫鍾夏에 의하여 『磬漢先生文集』이 간행<sup>110)</sup>되었다. 이 문집은 밀양에서 태어나 죽은 뒤 밀양 菊花山에서 장사 지내었던 孫起陽 선생의 후손에 의한 간행 사례이다. 즉, 후손 孫鍾夏가 쓴 『文集後識』에 따르면, 이 판은 1792년부터 간행이 도모되었으나 그 완성은 밀양에 세거하던 자신에 의하여 1825년 3월에 일단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행 당시 내용의 刪正이 미진한 부분은 李祥發의 釐正을 거쳤고, 재원 마련은 密陽 七灘亭의 財穀을 보태어 판각된 사실이 드러난다. 七灘亭은 문집의 저자 孫起陽이 벼슬을 관두고 머문 곳으로, 현재 밀양 丹場面 美村里에 건물이 남아 있다. 간행 후 문집은 밀양 七灘亭에서 몇 차례 더 追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인 1866년 11월에는 광주김씨 金志立에 의해 그의 7대 先祖 金守訥(1563-1626)의 實記와 序文, 行狀, 墓碣 등을 수합한 『九峯先生文集』이 간행<sup>111)</sup>되었다. 이 판의 간행처는 밀양 일대의 사가로 여겨지지만, 金守訥을 배향한 德陽齋에서 목활자로 인쇄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는 德陽齋에서 이와 비슷한 시기 목활자로 몇몇 판본을 간행한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106) 『格齋先生文集』序. “格齋先生孫公文集舊有密 / 城刊本唐宋賢序韻及 ….”

107) 『增補重刊昌原孔氏族譜』跋文. “… / 崇禎紀元後九十八年乙巳流月後孫世標再拜泣 / 血謹跋.”

108) 『增補重刊昌原孔氏族譜』識. “… / 歲在乙巳八月初九日識.”

109) 『格齋先生文集』重刊跋文. “… 公之孫府使相龍深慨遺篇之斷爛不 / 可壽傳謀所以廣印且以家藏詩若文數篇附諸下 / 惜乎全藁之遺軼散亡 ….”

110) 『磬漢先生文集』後識. “乙酉(1825)凡得若干… 七灘亭財穀復得若干 / … / 元集四卷附錄一卷不閱月而工告訖 ….”

111) 『九峯先生文集』文集後識. “… 不肖輩 / 懼其愈久愈泯迺遍謁諸鴻碩焉弁卷暨狀碣 / 文字輩付劂闕氏做實記例於乎是役也 … 歲丙寅陽復 / 月下澣七世孫志立謹跋.”

한편, 고종 10년(1873) 3월에는 安命夏(1682-1752)의 문집인 『松窩先生文集』이 그의 후손에 의하여 밀양 지역에서 간행<sup>112)</sup>되었다. 문집의 서문에 따르면, 이 판의 간행은 밀양에서 세거하는 저자 安命夏의 후손인 安孝完(1827-1893), 安孝憲 형제가 문중의 재정적 도움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간행한 사실이 확인<sup>113)</sup>된다. 특히, 판의 간행을 도모한 族孫 安孝完은 밀양에서 태어나 그 또한 밀양에서 별세한 기록이 확인되고, 문집을 새긴 목판 또한 221판 완질이 밀양 府北面 慕瀛堂에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1897년 봄에는 李翊九(1838-1912)에 의해 그의 7세 선조인 李萬白(1656-1716)의 문집인 『自濡軒先生文集』이 간행되었다. 이 문집의 서문은 1873년과 1878년에 작성되었고, 권말의 『文集後識』는 1873년 7월에 쓰여, 판본의 소장 기관 목록에는 간행 시기를 1873년 또는 1878년 등이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의 수록 내용 중 1890년 2월에 작성된 金麟燮의 『天淵亭說』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실제 간행은 그 이후의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문집의 간행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李翊九가 편찬한 『寓慕錄』의 기록에 따르면, 『自濡軒先生文集』은 1897년인 丁酉年 봄에 간행한 사실이 확인<sup>114)</sup>된다. 이 문집을 새긴 판은 밀양 府北의 退老에 위치한 驪州李氏 종가인 淸德堂에 보관되어 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03년 밀양시립박물관으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보관 중이다.

그밖에 밀양 지역 사가관의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즉, 19세기 중엽 밀양에서는 盧相稷(1855-1931)이라는 걸출한 출판인이 배출되었고, 그는 20세기 초경 이 지역 私家를 중심으로 한 문헌 출판 사업에 정점을 찍은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의 출판 활동은 자신이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주도한 사가 출판 뿐 아니라, 인근 書庄이나 書堂을 활용한 출판<sup>115)</sup> 등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그는 1902년 1월에 자신이 저술한 『東國儒賢錄』을 간행<sup>116)</sup>하였다. 간행 장소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저자가 거처하던 蘆谷 일대에서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04년 여름에 盧相稷은 퇴계 이황의 『古鏡重磨方』을 重刊하게 된다. 이 판은 비교적 최근인 20세기 초에 새겨진 간본으로, 권말에 ‘甲辰’년의 간기와 盧相稷(1855-1931)의 발문이 붙어 있다.

판본의 말미에 첨부된 盧相稷의 발문에 따르면, 이 판이 10행 20자의 체제로 판각된 경위를 알 수 있다. 발문에는 盧相稷이 이 판의 간행 시 재원을 조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정황을 밝혀 두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古鏡重磨方』은 『四書』와 『孝經』, 『小學』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정조 임금 또한 이 책을 元子の 강독 시 필수 교재로 삼았다. 마침 盧相稷 자신의 집안에 寧邊府本이 한 책 전하는 것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판하본을 다시 써서 이 판을 重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盧相稷이 재원을 마련하고 蘆谷에서 중간하였으며, 10행 20자의

112) 『松窩先生文集』 卷末 「識」. “此吾從高祖松窩先生遺集也惜乎斯集之… 在世之日累謀劊而事與時乘…”

113) 『松窩先生文集』 卷末 「序」. “蓋自 / 得於天機者也公之玄孫孝 / 和與其族人上舍生孝完圖 / 所以壽其傳者將付劊劊 / 氏持其稿跋涉千里…”

114) 李翊九 撰 『寓慕錄』 권말 「識」. “… 先人肆於丁酉春始刊自濡軒遺集繼 / 而重定是錄規模問架一依府君所命…”

115) 김철범, “小訥 盧相稷의 저술 및 문헌출간활동 방식,” 『동양한문학연구』 제27호(2008. 8), 197-199.

116) 『東國儒賢錄』 序文. “壬寅孟春後學光州盧相稷書.”

조밀한 판형으로 판각하였다.

이 판의 판각처인 蘆谷은 지금의 密陽市 북쪽 丹場面 蘆谷洞 일대로, 이 지역은 발문을 작성한 盧相稷이 활발한 문헌 출간활동을 하면서 중장년의 시기를 보낸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인본을 새긴 목판은 18판이 누락됨 없이 발문을 작성한 盧相稷의 후손인 盧在燦씨에 의해 1979년에 밀양의 시립박물관으로 기증되어, 현재까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같은 해(1904) 가을에는 『小學節要』도 간행되었다. 이 판 또한 盧相稷이 주도하여 새긴 것으로, 『古鏡重磨方』과 동일한 형식<sup>117)</sup>으로 판각되었고, 권말에 별도의 발문은 없으나 ‘甲辰秋蘆谷藏板’의 간기가 나타난다.

한편, 1906년 4월에 密陽 山外面 琴川에서는 『黃帝內經素問大要』가 목활자로 간행<sup>118)</sup>되기도 하였다. 이 판은 유학자이자 의학자였던 李圭峻(1855-1923)이 간행한 것으로 흔히 『素問大要』로 불린다. 1904년 3월 자신이 쓴 卷頭의 識에 따르면, 이 책의 편찬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즉, 李圭峻이 일찍이 『黃帝內經』을 보고 어떤 편은 반으로 줄이거나 두 세편으로 절도 있게 모으고, 어떤 편은 덧붙이거나 바로잡아 전체 81편이었던 것을 25편으로 編成<sup>119)</sup>하였다. 권말의 발문은 李鍾淳이 썼고, 발문에 이어 제8-9행에는 계선을 새기지 않고, 이 책의 간기로 ‘光武丙午初夏 / 密陽琴川新刊’이라 밝혀 두었다. 이 판본 뿐 아니라 역법과 한의학에 밝았던 李圭峻의 저술 및 간행 활동은 『浦上奇文』이나 『醫鑑重磨』 등 여러 편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1907년 7월에는 자신이 편찬한 『東國氏族攷』를 간행<sup>120)</sup>하여, 인근 산청의 蘆山精舍에 판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판 또한 판각 작업은 그의 활동 정황으로 비추어 蘆谷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盧相稷이 편찬하거나 판각에 관여한 『東國儒賢錄』, 『小學節要』, 『東國氏族攷』 등을 새긴 대부분의 목판은 현재 밀양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또 이듬해(1908) 4월에는 고려 후기의 문신이었던 孫洪亮(1287-1379)의 후손이 선생의 유사를 정리하여 『靖平公遺事』를 간행<sup>121)</sup>하였다. 편찬 및 간행을 주도한 이는 후손 孫亮大와 李重三이었다. 권말의 간행 참여자 기록에 따르면, 이 판의 간행 시 都監은 李重三 외 3명, 교정은 李重明, 金縉輝가 맡았다. 그 외 監印은 南錫愚 외 2명, 監刻 3명 등 총 16명의 인원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밖에도 1914년 6월에는 대대로 밀양 三浪津에 세거하던 牙山 張氏 蔣熙績(1627-1705)의 후손 蔣炳坤, 蔣必根이 그들의 선친 蔣熙績의 유고인 『洗心亭先生文集』을 밀양의 사가에서 간행<sup>122)</sup>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별도의 간기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책판 목록의 기록에 따르면 문집을 새긴 목판이 밀양에 보관되어 있었고, 삼랑진에 거주하였던 후손들에 의해 간행이 도모된 사례이다.

117) 行字數는 물론, 魚尾와 半郭의 크기까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됨.

118) 『黃帝內經素問大要』 卷末 刊記. “光武丙午初夏 / 密陽琴川新刊.”

119) 『黃帝內經素問大要』 『識』. “余嘗觀素問竊有慨然乎心者問有以是 / 書 … 舊凡 / 八十一篇今約得二十五篇 ….”

120) 『東國氏族攷』 跋文. “… 此孤陋訂其糝而補其遺庶 / 可以獲成完編云爾 / 強圉協洽柒月上浣廣州盧相稷謹書.”

121) 『靖平公遺事』 刊記. “隆熙二年戊申四月日刊于密陽安洞三畏堂.”

122) 『洗心亭先生文集』 跋. “… 今欲鉞諸梓而壽傳焉竊賀慈孫之竭誠於斯 / 役而猶 ….”

그리고 1917년 6월에는 申東顯(1641-1706) 선생의 7세손 申孝圭와 申楨圭에 의해서 『梅竹堂先生逸稿』가 간행<sup>123)</sup>되었다. 서문은 安禧遠(1846-1919)이 썼으며, 발문은 『省軒集』의 저자인 李炳燾가 작성하였다. 이로부터 2년 뒤인 1919년 12월에는 일찍 요절한 平山申氏 申泰龍(1862-1898)의 유집을 모아 그의 아들 申孝圭가 선생의 사후 20여년 뒤에 『道陽集』으로 간행<sup>124)</sup>하였다. 발문에 의하면, 선생의 글을 모아 盧相稷과 李炳燾에게 勘整받은 사실을 밝혀 두기도 하였다. 또한 발문에는 문집의 분량이 많지 않아 판각을 시작한 지 3달이 채 되지 않아 완성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平山申氏 儒士의 두 문집을 새긴 『道陽集』 板 80장과 『梅竹堂逸稿』 板 44장이 밀양 校洞의 申氏 문중에서 밀양시립박물관으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기도 하다.

같은 해(1919) 11월 밀양의 秣方에서는 鄭夢周의 문인이기도 하였던 河演(137-1453)의 문집인 『敬齋先生文集』이 그의 후손인 河述孝 등에 의해 목판으로 간행<sup>125)</sup>되었다. 이 판은 초간본이 1826년 후손 河大成이 발문을 써서 간행된 이후, 河演 선생의 문집으로는 三刊本에 해당한다. 그리고 후손 河述孝와 河漢孝 등이 도모하여 盧相稷의 勘整을 받고 간행을 도모한 密陽 秣方에는, 이 시기 盧相稷이 泗南書庄을 설치하고 강학과 출판 활동을 하던 곳이다. 즉, 河述孝의 발문에 따르면, 이 판이 간행된 장소는 泗南書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이 밀양 지역에서 간행된 사가판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밀양 지역 간행 私家版 목록

간행자	서명	책수	편저자	판종	간행년	소장처
孫胤漢	『格齋先生文集』	4책본	孫肇瑞 著	목판	1479	『格齋集』 『舊刊集跋文』
孔益成, 孔世標	『增補重刊昌原孔氏譜』	3권 3책	孔益成 等編	목판	1725	계명대
孫相龍	『格齋先生文集』	2권 1책	孫肇瑞 著	목판	1771	존경각
孫鐘夏	『擘漢先生文集』	4권 3책	孫起陽 著	목판	1825	국중
金志立	『九峯先生文集』	3권 2책	金守訥 著	목활자	1866	성균관대, 연세대
安孝完, 安孝寔	『松窩先生文集』	11권 6책	安命夏 著	목판	1873	한중연, 규장각
李翊九	『自濡軒先生文集』	4권 2책	李萬白 著	목판	1897	규장각
盧相稷	『東國儒賢錄』	10권 4책	盧相稷 著	목판	1902	동국대
盧相稷	『古鏡重磨方』	1책	李滉 編	목판	1904	경북대, 경상대
盧相稷	『小學節要』	1책	朱熹 編	목판	1904	영남대, 경상대
李圭峻	『黃帝內經素問大要』	4권 2책	李圭峻 編	목활자	1906	국중, 부산대
盧相稷	『東國氏族攷』	6권 3책	盧相稷 編	목판	1907	국중
孫亮大	『靖平公遺事』	1권 1책	孫洪亮 著	목활자	1908	규장각
蔣炳坤, 蔣必根	『洗心亭先生文集』	3권 1책	蔣熙績 著	목판	1914	국중
申楨圭, 申孝圭	『梅竹堂先生逸稿』	2권 1책	申東顯 著	목판	1917	국중, 계명대
申孝圭	『道陽集』	4권 2책	申泰龍 著	목판	1919	국중
河述孝	『敬齋先生文集』	5권 3책	河演 著	목판	1919	연세대

123) 『梅竹堂先生逸稿』跋, “... / 事實合爲一卷藏于家七世孫孝圭楨圭謀欲繙 / 梓公於世屬余置一言 ...”

124) 『道陽集』跋, “... 所傳誦者幾篇合而編之附狀碣挽 / 誅乞勘整于盧小訥李省軒兩丈仍付劖剛三閱月 / 而告訖 ...”

125) 『敬齋先生文集』跋, “... / 述孝與四從弟漢孝族人尙鍊璣秉勘整于盧斯文 / 相稷氏仍寫材于密州之秣方招工董役五閱月而 / 告成 ...”

### 5.1.5 鄕校, 樓亭 및 書堂版

서원과 더불어 지역에 설립된 향교와 누정 또한 선현들을 모시기도 하고, 유교 교육과 유생들의 강학 및 학문 교류를 이루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향교와 누정에서는 판각 활동도 일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전존하는 판본들 중에는 특정 건물을 간기로 표기한 판들도 있다. 밀양 지역에서는 일찍이 조선 초기에 향교가 설립된 기록이 나타나고, 누정에 대한 기록 또한 17세기 이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누정수도 대략 55개소<sup>126)</sup>가 넘어선다.

이와 같은 향교와 누정의 출판 활동으로 고종 13년(1876) 3월에는 밀양 초동면의 慕先亭<sup>127)</sup>에서는 고려 후기 문신 朴翊(1332-1398)의 시문집을 후손들이 모아 편집한 『松隱先生文集』이 간행<sup>128)</sup>되었다. 이 때 간행된 판본은 앞서 1837년 선암서원에서 판각된 것<sup>129)</sup>과 별도의 판본으로 여겨진다. 이 판본을 새긴 판목은 이후로도 慕先亭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최근에 밀양박씨 후손의 문중에서 판목이 조사<sup>130)</sup>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밀양향교에서는 19세기 말 목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密陽鄉案』을 간행한다. 이 판은 간기가 나와 있지 않으나, 향교에서 19세기말 20세기 초경 목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안의 본문에는 嘉靖甲申(1544) 鄉員부터 崇禎後丁酉(1657)까지의 향원이 入錄되어 있으나, 이 판의 간행 시기는 19세기 이후에 제작된 목활자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03년 겨울에는 밀양 蘆谷의 風雷亭<sup>131)</sup>에서 『性齋先生文集續編』과 『性齋先生文集附錄』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의 편성은 속편 6권과 부록 6권의 12권 6책으로 간행되었다. 권두 서문이나 권말의 발문은 없으나, 『續編』의 권말에 ‘癸卯冬風雷亭刊’이라 되어 있고, 『附錄』의 권말에 ‘密陽蘆谷藏板’이라 새겨져 있다. 특히, 밀양 蘆谷藏板의 간기를 가진 문헌들은 盧相稷과 盧相益이 출판에 관여한 판들이 다수 조사<sup>132)</sup>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뒤 1907년 1월에는 紫巖書堂<sup>133)</sup>에서 노상직 자신이 부녀자들이 배워야 할 내칙등을 『小學』에서 초출하여 한글로 번역한 『女士須知』가 간행되었다. 이 판은 기축년인 1889년에 盧相稷 자신이 쓴 서문과 권두에 ‘丁未孟春紫巖藏板’의 간기를 새겨두었다. 정미년은 1907년으로 보이고, 이 때는 紫巖書堂이 지어지기 전 그 전신격인 紫巖草廬로 여겨진다.

또 다른 판본에서는 권말의 판권지에 ‘大正六年 紫巖書堂에서 인쇄하였다’고 밝혀두어 간행 시기

126) 密陽樓亭錄刊行委員會 編, 『密陽樓亭錄』 (대전: 密陽樓亭錄刊行委員會, 1984).

127) 조선 성종때 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밀양박씨 朴守堅의 호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로, 이 정자로 인하여 모선동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이후 慕先齋로도 불리었다.

128) 『松隱先生文集』 刊記. “上之十三年丙子春三月重印于慕先齋.”

129) 1837년 선암장판본 松隱先生文集板은 이보다 앞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보관 중(2007)이다.

130) 한국국학진흥원,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同院, 2010), 272.

131) 小訥 盧相稷(1855-1931)의 형인 大訥 盧相益(1849-1941)이 1903년 세운 정자.

132) 김철범, “小訥 盧相稷의 저술 및 문헌출간활동,” 『동양한문학연구』 제27호(2008. 8), 191-209.

133) 盧相稷이 만주 망명 이후 1914년 蘆谷으로 돌아와 설립한 서당.

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서문과 본문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판인 것으로 미루어, 1907년 紫巖草廬에서 새긴 판목을 후에 紫巖書堂이 완공되고 판목을 정비하여 紫巖書堂에서 재차 인출하면서 붙인 인출기로 추정된다.

같은 해(1907) 6월에는 廣州安氏 沙浦派의 재실로 현재까지 건물이 잘 보존되고 있는 慕濂堂에서는 『廣州安氏派譜』가 목활자로 간행<sup>134)</sup>되었다. 후손 安禧遠(1846-1919)이 序跋을 쓰고 간행을 주도하였으며, 慕濂堂에 譜廳을 설치하여 1907년 3월에 간역을 도모하여 같은 해(1907) 6월에 간역의 업무를 일단락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17년 11월에는 밀양군 北面 退老里 退老書塾에서 『星湖先生文集』이 목판으로 판각<sup>135)</sup>되었다. 완질이 52권 27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각 활동으로, 문집의 간행은 한 해 전인 1916년 겨울에 발의하여 경비 마련을 위한 契會가 조직되었다. 그 뒤 퇴로서숙에서 李炳燾, 盧相稷 등의 주도하에 간행<sup>136)</sup>되었다. 권두의 문집 목록에 이어 한 면 전체에 걸쳐 ‘密陽退老藏板 / 乙巳入梓’라 새겨져 있다. 또한 권말에는 간기면을 별도로 두어 1917년 11월 밀양의 退老書塾에서 발행한 사실을 명기해 두었다. 이 판본은 속칭 『星湖先生文集』의 27책 완질인 退老本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후 『星湖集』은 퇴로본의 간행이 일단락되자마자 영남 문사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누락된 부분과 내용을 보태어 증보판격인 『全集』으로 간행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2년 6월에는 『星湖先生全集』이 68권 36책의 분량으로 대폭 추가되어 판각이 완성되었다. 이 판은 1917년 3월부터 간행이 모의되어서, 무려 5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완성된 대규모 판각 사업이었다. 간역 업무 시 사무 분장과 관련 사항을 정리한 『慕賢錄』에 따르면, 刊所는 밀양 府北面 沙浦 마을에 있는 廣州安氏의 재실인 慕濂堂으로 정하고, 83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간역 업무를 완성<sup>137)</sup>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1922) 11월에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광주 안씨 安珮(1569-1648)을 모신 五休亭<sup>138)</sup>에서 『五休堂先生文集』이 간행되었다. 서문은 1920년 李中轍이 썼고, 책의 말미에는 『五休堂亭重建記』와 간기가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1922년 밀양의 泗南書庄에서는 『眉叟先生年譜』가 간행되었다. 이 판은 권말에 ‘壬戌重刊年譜于密陽’이라 되어 있어서, 밀양의 어느 곳에서 판각된 사실을 밝혀 두었다. 하지만, 계명대학교 소장본 중에 소화 2년(1927) 泗南書庄에서 인출한 판권지가 첨부되어 있는 판본으로 판각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판의 말미에는 허목 선생의 5대손 許磊의 識文이 수록<sup>139)</sup>되어 있다. 지문의 작성 연도인 壬辰年 여름은 許磊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면, 영조 48년(1772)에 해당한다. 허목 선생의

134) 『廣州安氏派譜』 刊記. “上之光武十一年丁未三月十三日設譜廳于慕濂堂同年六月二十五 / 日畢役.”

135) 『星湖先生文集』 刊記. “大正六年十一月三十日發行 / … / 印刷兼發行所 退老書塾.”

136) 柳鐸一, 『星湖學脈의 문집간행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97.

137) 柳鐸一, 『星湖學脈의 문집간행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101-109.

138) 五休亭은 현재 밀양 金浦里에 남아 있다.

139) 『眉叟先生年譜』 跋文. “…世得有考焉歲壬 / 辰夏至日後孫磊敬識.”

연보는 許磊의 지문이 작성된 1772년에 간행된 바 있고, 이 판본은 1922년 泗南書庄에서 판하분을 다시 써서 찍은 重刊本에 해당된다. 그리고 판을 새긴 뒤 한동안은 泗南書庄에 목판이 보관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25년 2월에 慕濂堂<sup>140)</sup>에서는 『竹北文集』이 간행<sup>141)</sup>되었다. 조선 후기 활동한 廣州安氏 安仁一(1736-1806)의 유집으로 권두에는 1925년 2월 張錫英이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1924년 10월에 쓴 朴海徹의 識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의 간기에 따르면, 申泰亨이 인쇄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1926년 10월에는 泗南書庄<sup>142)</sup>에서 『孤雲先生文集』이 간행<sup>143)</sup>되었다. 이 판 또한 본문 및 권말의 간기에 따르면, 小訥 盧相稷이 1926년 6월에 서문을 쓰고 崔坤述의 주관 하에 申泰亨이 인쇄에 참여하였다. 이 판의 후속 작업으로 이듬 해(1927) 9월에 같은 泗南書庄에서 『孤雲先生事蹟』이 간행<sup>144)</sup>되기도 하였다. 권말의 지문은 1926년 7월 후손 崔在教가 작성하였고, 간역의 업무는 崔坤述과 申泰亨이 주관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간본으로 『洙泗言仁』이 泗南書庄에서 새겨졌다.<sup>145)</sup> 이 판의 권말에는 鄭述가 쓴 原識<sup>146)</sup>가 수록되어 있고, 판각과 인쇄는 권말의 간기로 미루어 20세기 초 泗南書庄에서 새겨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밀양향교에서는 1932년 8월에 朴秀憲, 安學洙 등이 밀양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인물 등을 망라하여 정리한 지역의 地誌인 『密州誌』를 목활자로 간행<sup>147)</sup>하기도 하였다.

이듬해(1933) 慕先亭에서는 『密城朴氏世譜』가 목활자로 간행<sup>148)</sup>되었고, 같은 해(1933) 10월에는 小訥 盧相稷의 문집인 『小訥先生文集』이 자신이 세운 紫巖書堂에서 간행<sup>149)</sup>되었다. 문집을 간역한 경위와 물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刊所日錄』에 이 판의 간행 경위가 잘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간역소는 紫巖書堂으로 정하고, 1933년 3월에 개관을 도모하여 각수 5명, 목수 2명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간행 비용은 30여명이 분담하여 1933년 10월 17일에 102질의 문집 인출을 완성한 내용이 기록<sup>150)</sup>되어 있다.

140) 밀양 府北面 沙浦 마을에 있는 廣州 安氏의 재실.

141) 『竹北文集』 刊記. “大正十四年二月二十日發行 / … / 印刷兼發行所慕濂堂.”

142) 소눌 盧相稷(185-1931)이 말년인 1919년 密陽 北面에 지은 書庄으로, 이곳에서 강학이나 교육, 출판까지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노상직은 이 외에도 밀양 金谷과 蘆谷 일대에 錦山書堂과 紫巖草廬 등을 짓고 강학과 교육 활동을 하였다.

143) 『孤雲先生文集』 刊記. “大正十五年十月四日 … 印刷兼發行所泗南書庄.”

144) 『孤雲先生事蹟』 刊記. “昭和二年九月十日 … 印刷兼發行所泗南書庄.”

145) 『洙泗言仁』 刊記. “泗南書庄藏板.”

146) 『洙泗言仁』 識. “萬曆甲辰臘月既望後二日後學西原鄭述謹識.”

147) 『密州誌』 刊記. “昭和七年八月二十八日 … / 發行所密陽郡鄉校.”

148) 『密城朴氏世譜』 판권지.

149) 문집 간행 관련 자료 중 『刊行商議通文』. “癸酉三月日 紫巖書堂會中 / … / 此亦中 刊役所以本堂爲準 而開板以今月十九日爲定事.”

1938년 9월 慕濂堂에서는 『漢山兩世實錄』이 간행<sup>151)</sup>되었다. 이 판은 광주안씨 安處善, 安完慶 선생 등의 遺事 및 事蹟을 정리한 판본이다. 권두에 李炳觀의 서문과 권말은 후손인 安孝轍과 安鍾徹이 각각 발문과 지문을 작성하였다. 판각을 주도한 인물은 安昌洙임을 간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1944년 4월에는 太乙菴 申國賓(1724-1799)의 유집을 모아 엮은 『太乙菴文集』이 景貞堂에서 간행<sup>152)</sup>되었다. 이 누정은 평산 신씨 申國珍(1736-1788)의 遺德을 景仰하기 위해 6세손 申禎澈이 1940년에 건립한 누정<sup>153)</sup>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밀양 지역 향교와 누정 및 서당에서 간행된 판본을 일람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밀양 지역 鄉校, 樓亭 및 書堂版 목록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종	간행년	소장처
密陽鄉校	『密陽鄉案』	2권 1책	密陽鄉校 編	목활자	19세기말	국중
慕先亭	『松隱先生文集』	4권 1책	朴翊 著	목판	1876	밀양시립박물관
泗南書庄	『洙泗言仁』	1권 1책	鄭述 編	목판	20세기초	부산대
風雷亭	『性齋集續編,附錄』	12권 6책	許傳 著	목판	1903	고려대, 규장각
慕濂堂	『廣州安氏派譜』	7권 2책	安禧遠 等編	목활자	1907	계명대
紫巖書堂	『女士須知』	1책	盧相稷 編	목판	1907	국중
退老書塾	『星湖先生文集』	52권26책	李瀼 著	목판	1917	국중, 규장각
慕濂堂	『星湖先生全集』	68권36책	李瀼 著	목판	1922	규장각
五休亭	『五休堂先生文集』	2권 1책	安玗 著	목활자	1922	국중
泗南書庄	『眉叟先生年譜』	6권 2책	許陸 著	목판	1922	국중, 동국대
慕濂堂	『竹北文集』	8권 3책	安仁一 著	목판	1925	경북대
泗南書庄	『孤雲先生文集』	3권 2책	崔致遠 著	목판	1926	계명대, 동국대
泗南書庄	『孤雲先生事蹟』	1권 1책	崔致遠 著	목판	1927	국중
密陽鄉校	『密州誌』	4권 2책	安學洙 等編	목활자	1932	계명대, 국중
紫巖書堂	『小訥先生文集』	48권 25책	盧相稷 著	목활자	1933	부산대
慕先亭	『密城朴氏世譜』	10권 10책	朴熙陽 等編	목활자	1933	국중
慕濂堂	『漢山兩世實錄』	3권 1책	安鍾慶 編	목판	1938	국중
景貞堂	『太乙菴文集』	8권 4책	申國賓 著	목활자	1944	국중

### 5.1.6 기타

이상에서 제시한 자료들 외에 간기가 없거나 또는 序跋을 통해서 간행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밀양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시대 여러 문인들의 문집들 중 밀양 판본으로 여겨지는 간본들이 다소

150) 柳鐸一, 『星湖學脈의 문집간행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179.

151) 『漢山兩世實錄』 刊記. “昭和十三年九月日 … / 印刷兼發行所 慕濂堂.”

152) 『太乙菴文集』 刊記. “昭和十九年四月 … / 慶尙南道密陽郡府北面 … / 印刷所 景貞堂.”

153) 密陽樓亭錄刊行委員會 編, 『密陽樓亭錄』 (대전: 密陽樓亭錄刊行委員會, 1984), 54.

확인된다. 이를테면, 문집의 구체적인 인출 장소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간행 실무가 저자의 문인과 후손들의 주도하에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례이다. 일례로, 밀양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세거한 密陽朴氏와 廣州安氏 및 驪州李氏 儒士들의 문집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문집 뿐 아니라 전존 판본 중 盧相稷이 편찬이나 교정 또는 간행에 관여한 여러 판본들은 간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밀양 지역 간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컨대, 1904년 盧相稷이 편찬한 『常體便覽』<sup>154)</sup>과 1906년 盧相稷이 편찬한 『朱子性理說節要』가 그러한 예이다. 이 두 저술들을 새긴 목판은 현재까지 밀양시립박물관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판본들은 간기나 구체적인 인출 장소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밀양 간본으로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밖에 밀양 지역 문집으로 알려진 판본으로는 앞서 제시한 여러 版源의 판본들 외에 朴壽春(1572-1652)의 『菊潭集』을 비롯하여, 安瑜重(1802-1868)의 『晚浦先生文集』 등 30여종 이상이 더 알려져 있다.

이 판들은 모두 밀양 간본으로 여겨지지만, 간행지에 관한 구체적인 발문이나 간기 및 인출 정보는 수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결같이 지역 출신 문사이거나 밀양에서 활동하다 지역에서 생을 마감 하였던 인물들이며, 문집의 간행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판을 새긴 목판이 현재까지도 밀양 지역에 남아 있으므로, 다분히 밀양 지역 간행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판본 중 밀양 간본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간행 사례로, 1899년 4월경 밀양에 세거하던 驪州李氏 家門 5인의 문장을 모은 『寓慕錄』이 간행되었다. 이 판을 새긴 목판은 밀양 退老의 驪州李氏 종가의 건물인 天淵亭에 보관되어 오다가 밀양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79판 완질이 남아 있다. 金道和의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은 桃源 李鍾極(1811-1859)과 恒齋 李翊九(1838-1912)가 본집과 속집의 편찬을 도모한 사실이 확인<sup>155)</sup>된다. 또한 권말 李翊九의 識文에는 이 시기 밀양 일대에서 판본을 간행한 사실<sup>156)</sup>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밀양 노곡 일대에서는 1907년 『千字文』이 간행되었다. 이 판의 출판 정황으로 보면, 小訥 盧相稷의 주도로 밀양의 錦山書堂이나 紫巖草廬 또는 泗南書庄 등지에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版源은 알 수가 없고, 다만 권말의 간기에 ‘丁未孟夏蘆谷藏板’이라 되어 있어, 1907년 蘆谷에서 새겨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밀양 지역의 鄉所 구성원들의 명부격인 『密陽鄉案』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경에 목활자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 판에 수록된 인물은 밀양 지역의 儒林으로 조선 전기부터 1691년까지

154) 『常體便覽』 刊記. “甲辰立秋節光州盧相稷書.”

155) 『寓慕錄』 「序文」. “…是錄也即桃源李公之所編而上…翊九氏追續先志又 / 以桃源遺蹟編爲續錄其規模條例一遵先錄…”

156) 『寓慕錄』 「識」. “… / 寓慕錄以壽諸梓則庶幾少伸吾哀慕之私而亦 / 欲使世世子孫遵守而…”

걸쳐 있다. 밀양 향교나 密陽府 주관 하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1947년에는 省軒 李炳熹(1859-1938)의 문집이 밀양 지역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판은 밀양 退老里 退老亭에서 간행된 것<sup>157)</sup>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함께 간행된 문집 중 驪州李氏 李世衡(1882-1931)의 『一亭文集』도 전하고 있다. 이 문집 또한 李世衡의 親友였던 裴炳翰이 분량이 방대한 李炳熹(1859-1938)의 『省軒先生文集』을 간행할 때, 함께 판각<sup>158)</sup>한 것이다. 다만, 간행의 구체적인 시점에 있어서 『一亭文集』에 수록된 李世衡 『行狀』이 쓰인 시점이 1947년 6월이므로, 그 이후 어느 때로 여겨진다. 이 두 문집의 밀양 간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밀양 退老에 세거하던 李炳熹와 李世衡의 저술이라는 점, 문집을 새긴 『省軒集』 292판과 『一亭集』 38판이 비교적 최근까지 밀양 府北面 退老里 여주이씨 종가인 淸德堂에 소장되어 있다가, 밀양시립박물관에 이관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판본 중에 밀양 지역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기타 版源의 전존본을 밝히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밀양 지역 기타 版源 목록

간행처	서명	책수	편저자	판종	간행년	비고
[退老]	『萬慕錄』	4권 2책	李鍾極, 李翊九 編	목판	[1899]	국중, 계대
[밀양]	『常體便覽』	2권 1책	盧相稷 編	목판	1904	국중
[밀양]	『朱子性理說節要』	4권 2책	盧相稷 編	목판	1906	부산대
蘆谷일대	『千字文』	1책	周興嗣 編	목판	1907	사우당종택
[밀양]	『密陽鄉案』	2권 1책	[密陽鄉校] 編	목활자	[20세기]	영남대
[退老亭]	『省軒先生文集』	17권 9책	李炳熹 著	목판	1947	국중
[退老亭]	『一亭文集』	2권 1책	李世衡 著	목판	1947	국중, 존경각

## 5.2 서지적 특성

이상과 같이 전존하는 밀양 지역의 간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다. 그 결과 지역 간행서로 확정지을 수 있는 대상은, 인본으로 간기가 남아있는 95종과 冊板 目錄이나 邑誌 등에 책판이 전존 하였던 18종을 합하여 모두 113종으로 한정된다. 물론, 최종 간행 종수 113종이라는 수치는 책판 목록이나 邑誌에 기재된 책판과 전존본의 중복이 존재하므로, 양자 간 동일한 판이 확실시되는 자료는 제외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밀양 지역 간행서로 특정될 수 있는 113종의 자료를 대상으로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157)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0), 229.

158) 한국국학진흥원 편,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3』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0), 243.

5.2.1 간행 서적의 주제별 분포

밀양 지역 간행된 판본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부분류법에 의거한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밀양 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의 주제별 분포

(단위: 種)

구분		종수 (비율)	구분		종수 (비율)
經	小學類	3	子	儒家類	10
	四書類	1		藝術類	4
	禮類	4		釋家類	17
	詩類	1		합계	31 (27.4%)
	합계	9 (7.9%)			
史	抄史類	1	集	別集類	42
	職官類	1		總集類	6
	傳記類	9		詩文評類	1
	系譜類	6		합계	47 (41.6%)
	地理類	7			
	합계	24 (21.2%)			
전체 종수	113종				

이상의 <표 9>와 같이 밀양에서 간행된 서적은 子部와 集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출판 경향 중 간행 종수면에서 儒·佛書로 대별하면, 유교서 91종(81%), 불교서가 22종(19%)으로 儒書 출판이 4배 이상 우세하다.

나아가 단일 類目으로는 子部 釋家類와 集部 別集類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釋家類는 임란 전부터 19세기말까지 꾸준하게 지속된 萬魚寺와 表忠寺의 불경 간행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文集이나 遺稿의 출판으로 대변되는 別集類는 유교의 교육 및 출판 기관이었던 書院이나 齋室 등과 더불어 私家의 출판까지 가세된 선대 문집의 간행 결과이다.

이 뿐 아니라 밀양의 관청에서는 郡守 주도의 小學이나 禮書 등의 經部 서적을 주로 간행하였고, 서원이나 재실에서는 문집 간행과 더불어 傳記類 서적도 비중있게 출판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일찍부터 불교가 자리 잡았고, 조선 후기 유학이 융성하였던 지역 분위기는 서적의 출판 양상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는 곧 밀양 출판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특수성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와 같은 출판 경향은 인근의 진주나 청도 등 유교적 전통을 지닌 영남 지역 출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 5.2.2 판각처별 분포

밀양에서 출판된 서적의 간행처를 일별하면, 전체 113종 가운데 25종은 새긴 장소의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문집류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므로, 지역의 문중이나 사가에서 새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판각처가 확인된 88종의 지역 간행서의 版源別 순위는 사찰관이 22종, 서원이나 齋舍版이 19종, 향교와 누정 18종, 사가관 17종, 관관 12종의 순위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출판 빈도로 볼 때, 밀양 지역에서는 출판의 여력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5.2.3 시기 및 판종별 분포

간행 시기의 측면에서 밀양 지역에서 간행된 고려시대 판본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조선시대 15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꾸준히 출판활동이 지속되었다. 지역 간행서의 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이러한 수치상 간격을 밝힌 인본 외에 책판목록에 서명만 수록된 18종의 경우, 책판 목록의 작성 시기로 그 간행 시기를 비정할 수밖에 없다.

<표 10> 밀양 지역에서 간행된 간본의 시기별 분포

(단위: 種)

구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종수	13	19	9	8	20	44
비율	11.5%	16.8%	7.9%	7.1%	17.7%	38.9%
합계	113 종					

이상과 같이 밀양 지역 간행서적은 조선 전기에는 관청과 사찰의 판각 사업이 우세를 이루다가, 19세기 접어들면서 서원과 향교, 누정, 서당 및 사가의 출판까지 가세하면서 다양화된 출판의 주체에 서 여러 서적을 찍어내었다.

이는 19세기를 기점으로 출판의 여건이 일반에게 보급되었음을 의미하고, 중앙이나 지방 관청은 물론, 목활자 등을 통해 대중들까지 쉽게 출판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지역 인쇄 출판의 보편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인쇄 출판의 수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밀양 간행서 113종 가운데 목판 인쇄 종수가 93종(82.3%)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쇄 방식에 있어서 19세기 이후에는 목활자로 20종(17.7%)의 서적을 찍어내고 있으므로, 이는 곧 서원이나 재사, 사가, 향교 등 민가의 영역에서 쉽게 접근 한 방식으로 지역의 출판 활동에 가세하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 6. 맺음말

이상으로 사료 및 기록, 또는 전존하는 간본을 통하여 밀양 지역에서 간행되었거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2차 자료 및 인본의 조사를 통해 문헌의 간행 시기와 성격, 간행처와 시기별 분포 등 그 서지적 특징에 대하여도 다루어 보았다.

이 연구는 영남 지역 군단위 출판 문화 활동을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전통적 방식으로 출판된 판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밀양의 출판문화 및 그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와 출판이 이루어졌던 배경적 사실을 간략히 고찰하였고, 고려시대 이후 밀양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 및 유통 기록,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존 판본을 서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 밀양에서 이루어진 지역의 출판 사실로, 사찰의 출판 활동은 萬魚寺와 表忠寺를 위주로 15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꾸준한 빈도로 지속적으로 불서를 계속 찍어내고 있었다. 그에 반해 관청의 출판 활동은 18세기 이후의 간행서가 1종에 불과할 정도로 조선 후기 출판 활동은 주춤한 모습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에 다양한 출판의 주체가 손쉽게 책을 찍어내어 서적의 수요가 충족되었고, 출판의 주체도 다원화된 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조선 전기 16세기까지는 관청의 주도로 儒家書와 四書類의 간행이 두드러졌던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더불어 이 시기 서원이나 사가의 출판은 매우 소략한 수준에 머물렀음은 충분히 짐작된다. 결과적으로 밀양 지역의 출판 양상은 조선 전기의 관청과 사찰 주도로 간행활동이 이어지다가 조선 후기 서원, 재사, 서당, 향교 등으로 옮겨가 다변화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한 후속 작업으로는 지역에 책판은 남아 있으나, 밀양 간본으로 특정하지 못한 30여종의 문집들에 대한 추가 고찰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 판본들에 대하여 문헌에 수록된 序跋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새로 발견되는 사실과 기록의 보완을 통해 밀양 지역 판본으로 확정짓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토대로 추가되는 인본을 찾아내고, 관련 근거의 보완을 통해 밀양 전통 출판문화 연구 분야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대구: 同會, 1999.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編.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柳鐸一 著. 『성호학파의 문집간행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문화재청. 『密陽 嶺南樓 - 실측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1999.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Ⅱ』. 대전: 문화재청, 2010.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 2016 전국사찰목판 일제조사 8 - 부산광역시·경상남도3』. 대전: 문화재청, 2016.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編. 『韓國의 寺址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전: 문화재청, 2013.
- 民族文化研究所 編. 『嶺南文集解題』. 경산: 嶺南大學校出版部, 1988.
- 밀양문화원 編. 『四溟堂 松雲大師 資料集』. 밀양: 밀양문화원, 1998.
- 밀양문화원 편. 『密陽地名攷』. 밀양: 밀양문화원, 1994.
- 밀양문화원 편. 『鄉土史料集1-2』. 밀양: 밀양문화원, 1986-1987.
- 密陽誌編纂委員會 編. 『密陽誌』. 밀양: 밀양문화원, 1987.
- 密陽鄉校誌刊行委員會 編. 『密陽鄉校誌』. 밀양: 密陽鄉校誌刊行委員會, 2004.
- 密陽樓亭錄刊行委員會 編. 『密陽樓亭錄』. 대전: 密陽樓亭錄刊行委員會, 1984.
- 박봉규 編. 『灌園逸錄』. 서울: 密陽朴氏灌園公派宗親會, 2006.
-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사찰문화연구원 편. 『(전통사찰총서 18-20)경남의 전통사찰 I-III』.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5.
- 釋尾春菴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신유한 엮음. 『송운대사분충서난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 沈喞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오세창 편. 『영남향약자료집성』.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李基白 編著.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서울: 一志社, 1993.
- 李樹健 外編.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9.
- 李雲成 編. 『密陽鄉校誌』. 밀양: 密陽鄉校誌 刊行委員會, 2004.
-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서울: 寶蓮閣, 1968.
-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9.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文集解題: 嶺南地方編 1·2·3』. 서울: 景仁文化社, 1983.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慶北鄉校資料集成』.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一冊 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1944.
- 鄭亨愚·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 東京: 國書刊行會, 1971.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蔡尙植 著.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3.  
 한국국학진흥원.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1·2·3』. 안동: 同院, 2010.  
 韓國人文科學院 編. 『朝鮮時代 私撰邑誌』.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9.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慶尙道』.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韓國人文科學院 編. 『韓國近代邑誌』.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1.

<논문>

- 곽재용. “밀양지역의 지명연구(I).” 『嶺南語文學』 21집(1992). 305-328.  
 곽재용. “밀양지역의 지명연구(II): 삼랑진읍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30집(1996). 55-104.  
 김동환. “범립본이 편찬한 『治家節要』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25집(2003. 6). 283-298.  
 김두진. “一然의 생애와 저술.” 『全南史學』 제19집(2002. 12). 175-196.  
 김광일. “밀양본 『新刊明本治家節要』의 문헌가치.”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8집(2011). 323-346.  
 金永善. “高峰和尚禪要 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4집(1997. 12). 161-212.  
 김윤수. “『佔畢齋集』의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 제35집(2006. 12). 303-327.  
 김철범. “小訥 盧相稷의 저술 및 문헌출간활동.” 『동양한문학연구』 제27호(2008. 8). 191-209.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南權熙. “東輿備攷의 사찰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6). 97-142.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1999. 2). 351-456.  
 南權熙. “1650년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한호서 천자문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연구』 제2호(2001). 287-384.  
 南權熙. “『東人詩話』의 서지적 고찰.” 『서지학연구』 제8집(1992. 12). 379-391.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제5·6집 합집(1990. 12). 161-181.  
 배현숙. “朝鮮朝 書堂의 書籍 刊行과 守藏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5집(2006. 12). 5-40.  
 서강선. “『佔畢齋集』의 판본 계통 연구.” 『서지학연구』 제57집(2014. 3). 253-283.  
 송정숙. “경남의 목활자본 연구.” 『서지학연구』 제20집(2004. 12). 381-404.  
 송정숙. “소눌 노상직의 『女士須知』 분석.” 『서지학연구』 제32집(2005. 12). 273-300.  
 옥영정. “책판목록을 통해 본 조선시대 선산지역의 목판인쇄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제34집(2006. 9). 101-128.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2009). 87-115.  
 유탁일. “朱子書節要의 편찬 유통과 朴光前의 위치.” 『퇴계학과 한국문화』 (2003. 12). 97-133.

- 유탉일. “영남지방 현존목활자와 그 인쇄용구.” 『奎章閣』 제3호(1979. 12). 31-56.
-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301-330.
- 윤상기. “조선조 경남지방의 서원판본.” 『서지학연구』 제60집(2014. 12). 5-35.
- 윤상기. “밀양 예림서원판본고.” 『인간과 문화연구』 제9집(2004). 367-402.
- 林道鉉. “『夾注名賢十抄詩』의 간행 목적과 유전 양상.” 『중국어문학』 제57집(2011. 6). 103-128.
- 禹貞任.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 정경주. “格齋唐韻唐宋賢詩絕句에 대하여.” 『석당논총』 제60집(2014. 11). 115-145.
- 정경주. “밀양의 퇴계 학맥.” 『퇴계학과 한국문화』 31집(2002). 45-68.
- 趙婷化. “朝鮮朝後期 嶺南官板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 蔡尙植. “밀양 表忠寺 소장자료 조사( I ).” 『韓國文化研究』 創刊號(1988). 293-311.

<참고 웹사이트>

- 『三國史記』: <http://www.koreaa2z.com/>
- 『三國遺事』: <http://www.koreaa2z.com/>
- 『高麗史』: <http://www.koreaa2z.com/>
- 『朝鮮王朝實錄』: <http://www.koreaa2z.com/>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 『日省錄』: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
- 『內閣日曆』: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
- 『增補文獻備考』: <http://www.krpia.co.kr/pcontent/>
- 『新增東國輿地勝覽』: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한국학자료포털: <http://kostma.aks.ac.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동국대학교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http://buddha.dongguk.edu/>